

# 정답과 해설

중학교 국어 2-2

# 1 시선과 목소리

## (1)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

**꼭꼭 확인 문제**

19쪽

1. ④ 2. ③ 3. ③ 4. ② 5. 친구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참다운 우정

1.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의 ‘한기’와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의 ‘썰렁한’에서 차가운 심상이 느껴지는데 이는 화자의 현재 처지를 보여 준다.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와 ‘따뜻했던 저녁’에서 따뜻한 심상이 느껴지는데 이는 화자가 느끼는 따뜻한 정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 시는 차가움과 따뜻함이라는 축약적 심상을 사용하여 화자의 상황과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해설

- ① 학급 교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학교가 끝난 후 집으로 가는 길과 집에 도착한 다음의 일을 다루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가 겪은 일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 ③ 이 시는 자신의 친구로부터 받은 감동을 그려낸 시로,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 ⑤ 이 시의 처음에는 추위와 배고픔을 느끼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 끝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을 맞이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처음과 끝에는 서로 다른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지식 창고 - 시상 전개 방식

- 뜻: 시인이 시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개하는 방식
- 종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
공간의 이동에 따른 구성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
수미상관의 구성	시의 처음과 끝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하는 방식
선경후정의 구성	앞에서 경치를 묘사하고 뒤에서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
대칭적인 구성	심상이나 의미를 대조적으로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

### 지식 창고 - 시적 화자의 태도

시적 대상 또는 시적 상황이나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마음가짐이나 대응 방식으로, 주로 화자의 어조를 통해 드러나며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 특정 시어, 서술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1~4연의 내용을 보면 화자가 열여섯 살의 중학생인 것으로 보이고, 5연을 보면 어른이 된 화자가 열여섯에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화자가 초등학교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

### 오답 해설

- ① 1~4연의 내용과 5연의 ‘내 열여섯 세상’ 등을 통해 시의 화자가 열여섯 살의 학생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3연의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에서 화자의 외로운 처지와 정서를 짐작할 수 있다.
- ⑤ 친구 선재가 ‘나’ 몰래 넣어 준 봉어빵에서 받은 감동을 이야기하고 있다.
- 3.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라는 시구는 화자의 부정적 현실을 보여 준다. 화자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처지임을 짐작하게 하는 구절로, 밝고 따뜻한 분위기와는 관련이 없다.
- 4. ①은 선재가 나의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면 달아 주는 장면이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선재가 ‘나’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나’ 몰래 가방 안에 봉어빵을 넣어 주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선재가 미리 ‘나’의 가방을 열어 놓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나’는 선재가 봉어빵을 몰래 넣어 준 것을 몰랐으며, 집에 와서 가방을 열어 보고 알게 된다.
- ④ 선재는 ‘나’ 몰래 봉어빵을 가방에 넣어 주었을 뿐, ‘나’가 봉어빵을 싫어할까 봐 걱정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 ⑤ 선재는 ‘나’에게 봉어빵을 주고 싶어서 가방 지퍼를 달아 준다고 한 것이므로 ‘나’를 놀린다고 볼 수는 없다.
- 5. ‘봉어빵’은 이 시의 중심 소재로, 이 시는 ‘봉어빵’에 얽힌 화자의 경험을 통해 친구를 위하고 배려하는 선재의 따뜻한 마음과 우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1. ③ 2. 어둡고 차가우며 외로웠던 분위기가 따뜻하게 변화한다. 3. ⑤ 4. ② 5. ⑤ 6. ①

1. 선재는 '나'의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면 닫아 주는데, 그때 '나' 몰래 붕어빵을 가방에 넣는다. 따라서 선재가 '나'에게 붕어빵을 직접 건네주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 붕어빵을 발견하기 전의 화자는 어두운 저녁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붕어빵을 발견한 후 친구의 따뜻한 우정을 느끼며 열여섯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을 맞이하게 된다.
3. 이 시의 화자를 열여섯 살의 중학생으로 파악했다면 이 시는 화자가 친구 선재로부터 느낀 감동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를 통해 친구들 간의 따뜻한 우정, 배려의 소중함 등을 느끼고 감동 받을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④ 화자가 16세 중학생이라면 자신이 최근에 겪은 일을 시로 풀어 낸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붕어빵에 얽힌 기억을 오래도록 잊지 못하고 있다(①)거나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선재 같은 친구가 되어 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④)고 보기는 어렵다.
- ② 화자가 16세 중학생이라면 16세에 경험한 일을 담담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이 시는 선재로부터 받은 감동을 전하고 있을 뿐, 선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해 후회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4. 선재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나'를 위해 붕어빵을 몰래 가방에 넣어 준다. 따라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나'에게 힘이 되어 준 존재는 선재이며, '나'가 선재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5. 이 시의 화자는 귀뚜라미로, 가을날 밤에 갈댓잎 사이로 허영게 보름달이 떠 있는 상황에서 울고 있다. 이런

장면은 애상적이고 쓸쓸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오답 해설**

- ① 이 시의 화자인 귀뚜라미는 갈대밭에서 울고 있다.
  - ② 이 시의 화자인 귀뚜라미가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고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 ③ 돌아가신 엄마를 잊지 못해 그리워하는 인물은 화자인 귀뚜라미가 아니라 시의 대상인 아이이다.
  - ④ 이 시의 화자인 귀뚜라미는 슬퍼하는 아이를 담담한 목소리로 위로하고 있다.
6. 이 시의 화자는 '귀뚜라미'로 의인화되어 있다. 따라서 화자를 '오빠'로 바꾸게 되면 사람이 화자이기 때문에 의인화된 화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1. ① 2. ② 3. ⑤ 4. 열여섯 살의 학생으로 가정 형편이 어렵고 외로운 친구 5. ② 6. 우는 아이를 대신하여 귀뚜라미가 가을밤에 우는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는 아이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혹은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아이의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 이 시는 붕어빵을 통해 참다운 우정과 배려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화자를 위해 화자의 책가방에 붕어빵을 몰래 넣어 준 친구 선재의 따뜻한 마음이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오답 해설**

- ② 가슴 아팠던 일이 아니라 감동을 받았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③ 화자가 잘못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 ④ 희생이 아니라 배려와 우정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
  - ⑤ 세상의 문제점이 아니라 따뜻한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 1~3연에서는 차가운 심상을 통해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보여 주고 있으며, 4~5연에서는 따뜻한 심상을 통해 친구의 따뜻한 우정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차가움과 따뜻함이라는 대조적 심상을 사용하여 친구의 따뜻한 마음과 참된 우정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1~4연에서는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동일한 시행이 반복되는 구절은 없다.
  - ④ 화자는 선재의 친구인 '나'이므로, 의인화되어 있지 않다.
  - ⑤ 각 연마다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지 않으며, 1~3 연에는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이, 4~5연에서는 친구의 따뜻한 마음이 드러나 있다.
3. 1~3연에서는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둡고 차가운 분위기가 느껴진다. 하지만 4~5연에서는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서 선재가 '나' 몰래 넣어 준 봉어빵을 발견하면서 친구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게 되고 '가장 따뜻했던 저녁'을 맞게 된다.
4. 일단,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간다는 부분에서 화자의 신분은 학생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돌아간 집에는 화자를 맞아 주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외로운 처지임을 알 수 있고, 따뜻한 밥 대신 학교 급식 우유로 배고픔을 달래야 하는 처지라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로운 처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지막 연의 '내 열여섯 세상에 /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열여섯 살의 학생임을 짐작할 수 있다.
5. 이 시의 화자는 귀뚜라미로,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③ 가을밤 갈대밭에서 귀뚜라미가 우는 풍경은 쓸쓸하고 애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 ④ 화자인 귀뚜라미는 '울지 마'라고 말하며 우는 아이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귀뚜라미에게 받은 짧은 편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귀뚜라미가 아이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6. ㉠에서 '나'는 귀뚜라미이다. 즉, '내가 대신 이렇게 / 울고 있잖아'에서 울고 있는 존재는 귀뚜라미이며, 가을밤에 귀뚜라미가 우는 것을 슬픔에 빠진 아이를 대신하여

우는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는 아이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

꼭꼭 확인 문제

31~61쪽

1. ⑤ 2. ② 3. ⑤ 4. ④ 5. 스스로의 재능을 의심하면서도 걸으려는 타고난 재능을 지닌 사람처럼 행동하고 다닌다. 6. ② 7. ⑤ 8. ③ 9. ① 10. 나는 그를 뒤따라 화방 안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거기서 서로에게 남아 있는 어릴 때의 옛 모습을 찾아냈다. 11. ① 12. ④ 13. ① 14. ④ 15. 이야기 속 인물인 '나'가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쓰였다. 16. ① 17. ② 18. ② 19. (축구 경기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20. ③ 21. ④ 22. 담임 선생님이 자신과 친한 5반 선생님께 부탁하여 3학년인 '나'를 4학년 5반의 사생 대표로 내보냄. 23. '나'가 학예 대회 초등부 사생 대표로 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24. ② 25. ① 26. ⑤ 27. ⑤ 28. '나'는 그림에 소질(재능)이 있다. 29. ④ 30. ② 31. ⑤ 32. ㉠: 경제적, ㉡: 가난한, ㉢: 부유한 33. ⑤ 34. ③ 35. 아버지가 그림에 뛰어난 재능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36. ⑤ 37. ④ 38. ① 39. ③ 40. ㉠: '나'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몇몇이 반 대표로 사생 대회에 참가함. ㉡: 대회 장소가 '나'의 학교임. 41. ③ 42. ④ 43. ① 44. ④ 45. '나'는 가난하고, '그 여자애'는 부유하다. 46. ③ 47. ② 48. ⑤ 49. ⑤ 50.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천부적인, 천재적인 재능을 명백히 확인받고 싶기 때문이다. 51. ⑤ 52. ① 53. ㉠: 새하얀 시멘트 길에 떨어지던 새하얀 햇빛, ㉡: 또각또각 찍히던 그 발소리, ㉢: 그 따뜻하고 기분 좋은 냄새 54. ③ 55. ④ 56. ① 57. ② 58. ④ 59. 학교에서 장원 상을 받은 사람이 '나' 하나뿐이며, 자신은 평범한 아이들과 달리 특별한 재능을 지니고 있어서 보고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쭐함(우월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60. ④ 61. ① 62. ④ 63. 예상치 못했던 일에 너무 놀라고 당황했음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뜻밖의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음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64. 천수기 선생님과 함께 다니던 그 아이 65. ① 66. ⑤ 67. 부끄러움, 죄책감 68. 수상작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69. ② 70. 풍경화가 어린 시절 사건을 떠올리게 하였고, 자신보다 더 잘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게 했기 때문에 풍경화를 그리지 않았다. 71. ④ 72. ⑤

1. 이 글의 갈래는 소설이다. 소설은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허구적인 상상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의 실제 경험과 허구적인 상상을 구분하며 읽을 필요는 없다.

2. ①과 ②는 '나'가 화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현재 시점으로, '그 일'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③에서는 '그 일'이 왜 생겨났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 때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이 글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인 '나'가 서술자이자 주인공으로, 자신의 '그 일'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다.
4. ①에서 '나'는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다른 직업을 가졌겠지.'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 일'이 현재의 직업을 갖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①에서 '내 실수는 아니라고.'라는 말을 통해 '나'의 실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② ③에서 '그 일은, 그 사건의 짝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자라기 시작했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초등학교 3학년 때 사건의 실마리가 나왔고 '그 일'은 좀 더 후에 일어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③에 담임 선생님과 아버지가 등장하지만 둘의 갈등은 나와 있지 않다.
- ⑤ ②에서 '나'는 그날 그 일이 있던 뒤부터 자신의 재능을 쫓 의심해 왔고 그로 인해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②에서는 '나'는 그 일이 있던 뒤부터 스스로의 재능을 의심해 왔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자기 생각을 들키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실제 마음속 생각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내적 갈등을 겪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6.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으며, 이 글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인물은 '나'이다.

#### 오답 해설

- ① 이 글의 주인공은 '나'이다.
- ③ 이 글은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발단 부분에 해당한다.

④ 아버지와 선생님은 친구 사이로 오랜만에 재회하는데 둘 사이의 갈등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아버지의 걸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아버지가 염소를 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 글 전반에서 농촌 사회의 향토적이거나 토속적 분위기를 그려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7. ⑤에서 아버지는 그림 재료를 사는 것도 '우리 형편에는 좀 과분'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염소를 팔아야 그 돈으로 화방에 가서 그림 재료를 사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8. 아버지는 염소를 판 돈으로 화방에 가서 그림 재료를 산다. 이는 자신의 아들이 그림에 재능이 있다면 아들이 꿈을 펼칠 최소한의 기회는 마련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9. ㉠은 아버지와 선생님 각각의 입장에서 서로를 지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는 모두 이 글의 주인공인 백선규를 말한다.
10. 선생님이 서술자가 되면 ㉦에서 '선생님'은 '나'로 바뀌어야 하고, 선생님과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인 '두 사람'은 '우리'로 바뀌어야 한다.
11. ⑥의 서술자와 ⑦, ⑧의 서술자는 서로 다른 인물이다. 서로 다른 두 서술자의 시점이 교차하면서 각자의 입장에서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12. ⑥은 '0'의 '나'가 자신이 겪은 '그 일'에 관해 들려주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 시절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장면이다. ⑦과 ⑧은 '1'의 '나'가 현재 미술관에서 나와서 전시된 그림을 본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⑥의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3. ⑧에서 '그 사람, 백선규. 나와 같은 고향 출신이고,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어릴 때부터 상이란 상은 다 받고 다니더니 자라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가 됐어.'라고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나'는 백선규를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⑦에서 '난 그림을 좋아해.', '그냥 그림을 좋아하고 좋은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애호가'라고 서술했고 실제로 그림을 보러 미술관을 즐겨 찾는다고 서술한 것으로 보아 그림 감상이 취미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ㄷ. 미술관에 그림을 감상하러 간 것이지 일하러 간 것은 아니다.
- ㄹ. 단지 그림을 좋아하는 애호가라고 했을 뿐 화가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 14. 8에서 '나'는 진짜 예술가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으며, 시간조차도 음악이나 화폭 속에 붙들어 놓을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 15. 7, 8에서는 '나'가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하듯이 들려주고 있으며, '나'가 서술자이자 주인공이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한다.
- 16.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므로 독자는 '나'의 이야기를 직접 곁에서 듣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친근감과 신뢰감을 느낄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⑤ 3인칭 전지적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③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④ 1인칭 관찰자 시점이나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17. 9와 10은 모두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으며,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주관적 태도로 고백하듯이 들려주고 있다.
- 18. 9에서 '나'는 백선규 작품의 예술성과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악마가 그려 준 것처럼 동그랗고 선명한 저 원', '영혼을 팔아서 그 대가로 도깨비가 가져다준 물감을 쓰는 것일까', '여우 귀신이 그에게 검은색 물감을 가져다주는 것일까'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 '나'가 백선규의 작품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 19. 10에서 '나'는 축구 결승전이 열릴 운동장 곁을 지날 때 사람들의 함성만 들어도 가슴이 쿵쿵쿵쿵 뛰었고, 빨리 경기를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주먹을 꼭 쥐 손바닥이 아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나'의 축구 경기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표현하는 구절이다.
- 20. 이 글에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쓰였으며, '나'가 축구 경기를 보지 못하고 초등부 사생 대표로 사생 대회에 출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내면 심리가 잘 드러나 있다.

- 21. 11에서 '나'는 축구 경기를 못 봐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축구 경기를 볼 수 없었던 게 담임 선생님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선생님을 원망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22. 12에서는 담임 선생님은 '나'에게 그림에 대한 재능을 살릴 기회를 주고자 했는데, 그 방법은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했다. 아직 3학년인 '나'는 4학년 이상만 참가하는 대회에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3학년인 '나'를 4학년 5반 대표로 내보내는 편법을 써서 대회에 참가시킨다.
- 23. 선생님이 '나'를 사생 대회에 참가시켰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열리는 축구 경기를 볼 수 없었던 것이다.
- 24. 13에서는 '나'가 사생 대회에 참가하느라 축구 결승전을 보지 못해 눈물을 흘리는 내용이 나와 있고, 14에서는 그 대회에서 '나'가 장원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따라서 '나'가 축구 결승전을 보지는 못했지만 사생 대회에서 장원을 한 것이 중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25.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도 공설 운동장에서 함성이 들려왔을 때 눈물을 흘리기까지 한다.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축구 경기를 보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고 할 수 있다.
- 26. 14에서 아버지는 '나'가 장원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도 씩스럽게 웃는 반응을 보인 게 다였다. 따라서 평소 무뚝뚝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27. 15에서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 어머니가 없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 28. 선생님은 초등학교 3학년인 '나'가 4학년 이상의 좀 더 나이가 많은 학생들을 제치고 장원을 했다는 점과, 따로 그림을 배운 적이 없음에도 장원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가 그림에 재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 29. '나'는 특별 활동반으로 문예반에 들어갔지만 글짓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며 글짓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따라서 글짓기에 소질을 보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30. 아버지는 "딸내미가 이쁘게 커서 시집만 잘 가면 됐지, 뭐 그림 그려서 돈 벌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식구들

먹여 살릴 것도 아닌데 힘들게 공부할 거 뭐 있냐.”라고 말한다. 이런 아버지의 말에서 여자에 대한 차별적 사고를 갖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1. 문예반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 사생 대회 대표로 뽑혔다는 사실은 ‘나’의 그림 그리는 재능을 인정받았음을 말해 준다. 실제로 16에서 미술 과외를 하면서 남들보다 그림을 잘 그리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18의 내용으로 보아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미술용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도 그림 연습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그림을 잘 그리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32. ㉠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문예반 아이들과 미술반 아이들의 경제적 형편이 서로 대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33. ㉡은 ‘나’가 자신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부분이므로 ‘나’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려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4. 19에서 ‘1’의 ‘나’는 ‘0’의 ‘나’가 자신과 달리 무척 가난한 아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보기>에서도 ‘0’의 ‘나’는 ‘1’의 ‘나’가 자신과 달리 부유한 환경의 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19의 서술자는 ‘나’에게서 지독한 가난의 냄새가 난다며 ‘그 냄새며 꼴이 싫’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호감을 느낀다고 볼 수 없다.

② <보기>에서 ‘나’는 그 여자와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④ 19와 <보기> 모두 상대방에게서 받은 인상을 주로 서술하고 있다.

⑤ <보기>의 ‘나’는 그 여자가 미리 그려 놓은 밑그림이 아까워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다고 추측하는데, 19에서 ‘나’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

35. ㉠의 바로 앞 문장에서 ‘나’는 자신의 아버지가 천 선생님이 인정해 준 뛰어난 그림 재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천 선생님의 평가 기준이 높다고 말한 이유는 그만큼 아버지가 그림에 뛰어난 재능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36.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쓰러지면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 가야 했기 때문에 미술 대학 진학을 미룬다. 따라서 끼이 화가의 꿈을 포기하고 농부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37. ㉢에서 보면 아버지는 ‘나’의 그림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병석에 누운 할아버지와 우리 식구들 굶기지 않으려면 정신없이 일을 해야 했다는 서술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꾸려 가기 위해 그림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기는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38. ‘나’는 미술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화가로서의 재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죽어라 연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39. ‘나’는 자신의 출생이 아버지로 하여금 화가로서의 꿈을 접게 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로써 아버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과 노력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40. ㉣에서 ‘나’는 작년과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내가 몇몇이 반 대표로 사생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대회 장소가 우리 학교라는 게 달랐지.’라고 말하고 있다.

41. ㉤에서 ‘나’는 여자아이가 ‘나를 한 번 힐끗 넘겨다보는 코를 찡그리더니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는 장면을 떠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2. 서술자는 ‘그 여자에’와 ‘나’ 사이에 비슷한 점은 하나도 없으며 ‘그 여자에’는 무척 부유한 환경의 아이이고 자신은 가난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43. 작년과 달리 ‘나’는 축구 결승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나에게는 목표가 있었어.’라고 말하며 장원 상과 상품을 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44. 주최 측이 ‘나’에게 번호를 잘못 부여했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에서 ‘잊어버릴 수가 없는 번호야.’라고 말했다.

- ② 25에서 '나는 도화지 뒤 네모난 보랏빛 칸에 검은색으로 번호를 124라고 분명히 적었어.'라고 말했다.
- ③, ⑤ 23에서 124번은 무장간첩을 훈련한 부대 이름과 같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번호를 기억하는 건 아니라는 말에서 그 번호에 얽힌 특별한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5.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크레파스는 '그 여자에'의 부유한 환경을, 한 번 더 쓰면 닳아서 쓸 수 없는 크레파스는 '나'의 가난한 환경을 짐작하게 해 주는 소재이다.
46. 서술자의 객관적 설명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추리하고 의미를 찾으며 읽어야 하는 시점은 작가 관찰자 시점이다.
47. 29에서 '나'는 심사 결과가 축구 결승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작년과 달리 축구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48. 29에서 '나'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친구들과 하는 축구가 이상하게 재미가 없으며, 자꾸만 눈이 심사를 하고 있을 교실로 향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이 정신을 어디다 파느냐고 화를 낼 정도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나'의 긴장감과 초조함을 짐작할 수 있다.
49. '쪽박을 차다'는 '거지가 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먹고살기 힘들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50. 29에서 '나'는 자신이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이유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천부적인, 천재적인 그림 재능을 확인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직접 밝히고 있다.
51. 31의 '나'는 장원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뻐하지만, 32의 '나'는 상에 욕심을 부려 본 적도 없다고 말한다.
52. 32에는 '나'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요약하여 보여 주고 있다. 어릴 때의 가정 환경과 성장 과정 및 현재 가족 관계 등을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나'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53. '새하얀 시멘트 길에 떨어지던 새하얀 햇빛'은 시각적 심상에 해당하고, '또각또각 찍히던 그 발소리'는 청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주 선생님에게서 느껴지던 '따뜻하고 기분 좋은 냄새'는 후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54.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나'의 긴장과 초조함이 일시에

- 완화되면서 장원한 것에 대한 기쁨과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았다는 안도감과 행복감에 눈물을 흘렸다고 할 수 있다.
55. 33에서 '나'는 자신의 실수로 상을 받지 못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실수를 바로잡으면 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은 수상작이 뒤바뀐 사건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56. 33에서 '나'는 실수를 바로잡아 상을 받고 싶은 마음과 실수를 바로잡는 과정이 귀찮아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57. ㉠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가 실수를 바로잡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직접 서술하고 있다. 그 과정이 귀찮고 상이 없어도 행복하며 이미 상을 받은 아이가 느낄 좌절감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하였다.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58. 전시회에 가지 않던 '나'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전시회로 가는 행동은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며 사건의 반전이 일어나는 계기로 작용한다.
59. 34~35에서는 '나'가 장원 상을 받은 것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장원 상을 받은 사람은 자신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우쭐함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60. 37~39에서는 '나'가 수상작이 뒤바뀐 것을 알게 되면서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는 소설 구성 단계상 주인공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절정 부분에 해당한다.
61. 37에서 전시회에 걸려 있는 장원작이 '나'의 그림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나'에게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62. 36에서는 '나'가 자신의 장원작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높이에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우쭐해하는 심리가 드러나 있다. 하지만 37에서는 장원작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면서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39에서는 장원작이 자신이 그린 그림보다 더 뛰어난 작품임을 발견하면서 '나'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63.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서술을 통해 '나'가 느낀 충격의 정도가 매우 컸음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64. 38에서 '나'는 자신과 비슷한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아 자신과 비슷한 자리에서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림의 주인일 것이라고 추측하며, '천수기 선생님과 함께 다니던 그 아이'가 제 번호 대신 '나'의 번호를 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5. ㉔~㉖에는 '나'가 장원작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겪는 내적 갈등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즉,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을 밝힐 수 없어서 고민하는 '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66. ㉗는 장원 상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이미 장원 상을 받은 아이가 느낄 충격과 좌절감을 말하는 것으로, 수상작이 바뀌는 실수는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장원 상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여 그 아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67. '나'는 그 여자아이가 그림을 그린 당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과 죄책감 때문에 그 여자아이를 똑바로 볼 수 없어서 눈을 감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8. 이 글에서 '나'가 한 선택은, 수상작이 뒤바뀐 사실을 알면서도 장원작이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끝내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9. 그 일 이후로 '나'는 늘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며 살아간다. 자신보다 뛰어난 재능을 지닌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았고, 그래서 자신이 가진 능력 전부를, 그 이상을 쏟아부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그림을 그렸다. 그 결과 한국을 대표하는 뛰어난 화가가 되었다.

**오답 해설**

나. ㉔에서 '나'는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며 살아왔다고 했을 뿐,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다. ㉔에서 '나'는 반공 포스터조차도 최선을 다해 그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가 어떤 미술 활동을 하든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㉖에서 '나'가 풍경화를 그리지 않고 추상화를 주로 그렸다는 서술을 통해 '나'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작품 활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70. <보기>에는 '나'가 풍경화를 그려 장원 상을 받았는데, 장원 상을 받은 그 풍경화가 자신의 작품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따라서 풍경화는 '나'에게 어린 시절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였고, 자신보다 풍경화를 더 잘

그리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가 풍경화 대신 추상화만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1. ㉗에서 '나'는 백선규를 알아보고 인사를 할지 고민한다. '고향, 연도, 초등학교를 말하면 알아볼까?'라는 말에서 '나'와 백선규가 같은 고향 출신으로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음을 알 수 있다.

72. ㉘는 '나'와 백선규가 서로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서술이다. 즉, 두 사람은 어린 시절 한 사건을 겪지만 성인이 된 후 각자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험엔 이렇게!!**

62~65쪽

1. '1'의 '나'가 참가 번호를 잘못 적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사생 대회 수상작이 뒤바뀌어 '0'의 '나'가 장원 상을 받았다.  
2. ㉔ 3. ㉔ 4. ㉔ 5. '0'의 서술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가 되었고, '1'의 서술자는 그림 감상을 취미로 즐기는 여유 있는 삶을 누리고 있다. 6. ㉔ 7. 같은 상황에 처한 두 인물의 심리를 비교해 보는 재미가 있다. 8. ㉔ 9. 수상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미술반 선생님 품에 안겨 울던 일이 생각나서 부끄러운 마음에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1. 이 글의 중심 사건은 두 서술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어린 시절의 선택을 다룬 사건이다. 초등학교 시절 수상작이 뒤바뀐 것을 알면서도 두 서술자는 모두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데, 그 일로 인해 두 인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그려 내고 있다.

2. '1'의 '나'는 그림 감상이 취미인 그림 애호가이다.

**오답 해설**

㉔ '0'의 '나'는 소설의 시작과 끝 부분에서 자신이 현재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뛰어난 화가임을 밝히고 있다.

㉔ '0'의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자라났다.

㉔ '1'의 '나'는 읍에서 큰 제재소를 운영하는 부유한 집안의 딸이다.

㉔ '1'의 '나'가 아니라 '0'의 '나'가 초등학교 사생 대회에서 장원 상을 받는다.

3. '0'의 서술자는 농사를 짓고 염소를 치는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다.

**오답 해설**

- ① '0'의 서술자의 아버지는 화가의 꿈을 접었지만 '0'의 서술자는 화가가 된다.
- ③ '0'의 서술자가 축구를 좋아했지만 축구 선수로서의 재능이 있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 때만 축구를 좋아했을 뿐, 4학년 때는 축구보다 그림 그리기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 사생 대회에서 장원을 하는 등 그림 그리기에 재능을 보였고 결국 화가가 된다.
- ④ '0'의 서술자는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그림 재료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어려서 다양한 예술 교육을 받은 것은 '1'의 서술자이다.
- ⑤ '0'의 서술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그림에 재능이 있다면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회는 마련해 주 고자 하였다.
- 4. '1'의 서술자는 부유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났기 때문에 경쟁을 싫어하고 귀찮은 일을 싫어한다.
- 5. '0'의 서술자는 어린 시절 수상작이 뒤바뀐 사건 이후로 각고의 노력을 거듭하여 유명한 화가가 되었고, '1'의 서술자는 취미로 미술 감상을 하면서 여유 있게 살아가고 있다.
- 6. 이 소설은 '0'의 서술자와 '1'의 서술자가 각자의 관점에서 각자 겪은 일을 들려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교차 하면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두 서술자는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 ② 대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듯이 들려주고 있다.
- ④ 두 서술자는 각자 주관적인 태도로 자신이 겪은 일 과 그때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서술하고 있다.
- ⑤ '0'의 서술자와 '1'의 서술자는 서로 다른 인물이다.
- 7. 같은 사건을 두 서술자가 서술할 때 각자의 관점으로 각자 생각하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처한 두 인물의 심리를 비교하며 읽는 재미가 있다.
- 8. '1'의 '나'는 자기가 받아야 할 상을 찾아오고 싶은 마음 도 있었지만 결국 포기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상을 찾아오기 위한 과정이 귀찮게 느껴지기도 했고, 이미 상을 받은 아이가 느낄 좌절감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 9. '0'의 '나'는 장원작이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장원 소식을 들었을 때 주 선생님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던 일이 생각나서 부끄러운 마음에 도저히 주 선생님께 사실을 밝힐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70~75쪽

1. ① 2. ⑤ 3. ② 4. (마), (바), '나'의 장원작이 다른 사람의 그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다.  
 5. ① 6. 그림을 그릴 때마다 최선의 노력을 하여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뛰어난 화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7. ② 8. ① 9. ⑤ 10. ① 11. 첫째, 실수를 바로잡는 과정이 귀찮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둘째, 이미 상을 받은 아이가 느낄 좌절감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셋째, 상을 받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12. ④ 13. ③ 14. ⑤ 15. 내 뒤에서 그림을 그리던 녀석, 옷도 지저분하고 검정 고무신을 신은 데다 간장 냄새가 나던 녀석 16. 나는 그에게서 나는 지독한 가난의 냄새가 싫었어. 17. ① 18. ① 19. ② 20. 그 여자아이가 장원작을 그린 당사자임을 알고 부끄러운 마음 과 죄책감, 진실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에 그 아이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을 것이다.

- 1.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속 등장인물인 '나'로,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따라서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②, ⑤ 이야기 속의 '나'가 다른 주인공의 사건을 들려주는 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 ③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서술하는 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 ④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훤히 알고 있거나 사건의 속사정까지 알고 있는 것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다.
- 2. (나)에서 아버지는 '나'의 장원 소식을 듣고는 씩스럽게 웃는 듯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아버지 역시 '나'의 장원 수상을 기뻐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감정을 겉으로 잘 내색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 이 글의 '나'는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것들, 자신의 속마

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다(ㄱ). 또한 (가)는 성인이 된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바)에서는 과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으며, (사)는 다시 과거 그 사건 이후 현재가 되기까지 모습을 다루고 있어서 ‘현재-과거-현재’의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ㄴ).

4. ‘나’가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게 만든 그 사건은 (마)와 (바)에 제시되어 있다. 자신이 장원 상을 받은 그 작품이 사실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나’가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

5. ㉠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된 것이다. 이것을 <보기>에서 설명하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꾸어 서술하려면, ‘나’를 3인칭인 ‘그’나 그의 이름인 ‘백선규’로 바꾸어 주어야 하고, ‘나’의 심리를 직접 묘사하는 대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관찰하여 보여 주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나’를 ‘그’로 바꾸고, ‘가슴이 후들후들 떨려서’를 ‘얼굴색이 파랗게 변하더니’라고 겉모습을 관찰해 묘사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나’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어서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한다.

③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한 것이다.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인 백선규를 ‘그’라고 부르며 그의 모습을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④, ⑤ 그의 심리를 훤히 꿰뚫고 있어서 3인칭 전지적 시점에 해당한다.

6. 그 결과의 내용은 ㉠의 앞부분에 나오는 서술에서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쏟아붓는 최선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가)에 나오는 것처럼 뛰어난 재능을 지닌 화가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 이 글의 시점은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서술자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인 ‘나’로 주인공이다(ㄱ). 그리고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고 있다(ㄴ). 또한 (바)에 잘 드러나듯이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과 내적 갈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ㄷ). 그리고 이렇게 서

술자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고백하듯이 들려주기 때문에 독자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ㄹ).

**오답 해설**

ㄷ. 서술자는 주관적 태도로 자신이 겪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ㄹ. 서술자는 자신의 관점으로 자신의 이야기만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등장인물의 사건 전개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8. 이 글에서 드러나는 갈등은 (바)에서 찾을 수 있는데, ‘나’가 번호를 잘못 써서 장원 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일을 둘러싸고 갈등을 하고 있다. 실수를 바로잡아 상을 받고 싶은 마음과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그냥 내버려 두기로 한다.

9. (다)에서 ‘나’는 그림에 재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후 그림을 열심히 그리지 않는다. 또한 (마)에서는 스스로 부유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고 평탄한 삶을 살아왔으며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바)에서는 자신이 받아야 할 상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바로잡는 과정이 귀찮아 상을 포기한다. 따라서 ‘나’의 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나’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10. (나)와 (사)에서 ‘나’는 백선규와 같은 고향 출신이며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음을 알 수 있다.

11. ㉠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 답을 알 수 있다. ‘나’가 백선규를 스쳐 지나갈 때 백선규에게서 느껴지는 그 가난의 냄새를 맡으며, 그 아이가 느낄 좌절감이 생각났고,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는 과정이 귀찮게 느껴졌고, 상을 받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을 밝히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12. (가)와 (나)에는 두 서술자가 사생 대회에서 만나는 장면이 공통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앞뒤로 나란히 앉아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리는 상황에 대해 두 서술자는 각자의 관점에서 받은 인상을 각각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상황에 처한 두 인물의 심리를 비교해 볼 수 있다.

13. 이 글에는 '0'의 '나'와 '1'의 '나'가 특별활동을 같이 했다는 내용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0'의 '나'는 '1'의 '나'가 자신과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학교에서 본 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② (가)와 (나)에서 '0'의 '나'와 '1'의 '나'는 사생 대회에 학교 대표로 참가하여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0'의 '나'가 서술하는 내용을 보면, '1'의 '나'인 그 여자에는 크레파스부터 한 번도 쓰지 않은 새것을 쓰고 있으며 부유해 보이는 옷차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자신은 한 번만 더 쓰면 쓸 수 없도록 많은 크레파스를 쓰고 있으며, 스스로를 촌뜨기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0'의 '나'는 무척 가난한 아이임을 알 수 있다.

⑤ (나)에서 '1'의 '나'인 여자에는 자주색 원피스에 검정 에나멜 구두를 신고 머리에 푸른 구슬 리본을 매고 있으며 얼굴이 무척 희고 예쁘다고 서술되어 있다. 반면 (가)에서 '0'의 '나'는 옷도 지저분하고 검정 고무신을 신은 데다 간장 냄새가 나던 녀석으로 '0'의 '나'에게서는 지독한 가난의 냄새가 났다고 서술되어 있다.

14. (나)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0'의 '나'는 반드시 장원을 하고 상품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마감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린다. 반면에 '1'의 '나'는 그림을 먼저 제출하고 가는데, 이것에 대해 '0'의 '나'는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은 재미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유한 아이들이 그림을 대하는 자세가 자신과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15. (가)와 (나)를 종합하여 보면, '0'의 '나'는 '1'의 '나' 뒤에 앉아 그림을 그린다. 따라서 (가)에서 '1'의 '나'가 '내 뒤에서 그림을 그리는 녀석, 옷도 지저분하고 검정 고무신을 신은 데다 간장 냄새가 나던 녀석'이라고 표현한 아이가 '0'의 '나'임을 알 수 있다.

16. ㉠과 같이 행동한 까닭은 (가)에서 '1'의 '나'가 직접 밝히고 있는데, '그 냄새며 꼴이 싫어서 자리를 옮기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다. 즉, 그에게서 나는 지독한 가난의 냄새가 싫어서 고개를 돌린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17. (가)와 (나)에서는 서로 다른 두 서술자가 각자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두 서술자는 수상작이 뒤바뀐 사건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서술함으로써 각자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이 글의 주제는 (가)와 (나)에 제시된 어린 시절의 사건에서 두 서술자가 각자 어떤 선택과 대처를 했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어떤 선택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될까'에 대해 떠올려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④ 이 글의 두 서술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고 각자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③ (가)의 서술자는 자신이 받아야 하는 상조차 실수를 바로잡는 과정이 귀찮게 느껴져 내버려 둔다. 따라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나)의 서술자는 그 일 이후로 어떤 작품이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완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은 그 일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과 관련된 것이지 도전 정신과는 거리가 있다.

⑤ 이 글의 두 서술자는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 서로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19. <보기>의 등장인물은 '백선규', '그녀', '여자아이'라고 지칭되어 있으므로 모두 3인칭으로 서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작품 속에 '나'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백선규와 여자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그들의 행동을 통해 전달하고 있을 뿐, 인물의 내면의 모습을 고백하듯이 들려주고 있지는 않다.

④ 서술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에서 두 인물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⑤ 서술자는 백선규와 여자아이가 모두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을 정확히 알고 서술하고 있다.

20. '나'는 그 여자아이가 장원작의 주인임을 눈치챘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죄책감도 느껴져 그 여자아이를

지나칠 때 눈을 감았다고 할 수 있다. 혹은 진실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에 눈을 감았다고 할 수도 있다.

대단원 평가 대비하기

78~83쪽

1. ① 2. ① 3. ③ 4. ㉠의 '한기'는 차가운 분위기를, ㉡의 '따뜻했던 저녁'은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따라서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차가운 분위기에서 따뜻한 분위기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5. ⑤ 6. ① 7. 조약돌, 상대방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 /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 8. 가을밤 갈대가 우거진 곳이다. / 가을밤 갈대밭이다. 9. ⑤ 10. '나' 11. ④ 12. '나'는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노력 없이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면서 자신이 가진 능력 전부, 그 이상을 쏟아붓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13. ⑤ 14. ② 15. ③ 16. ⑤ 17. ㉢: 이미 상을 받은, 가난에 찌들어 보였던 그 아이가 좌절할 것, ㉣: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 18. 백선규는 자신이 받은 장원 상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④ 20. ② 21. ③ 22. ㉢: 후각, ㉣: 시각, ㉤: 무척 가난한 아이 23. ⑤ 24. ②

- (가)와 (나)의 문학 갈래는 시이다. 시를 쓰는 시인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화자를 설정한다. 따라서 시를 읽을 때는 화자의 관점에 주목하여 시인이 화자를 설정한 의도와 그 효과를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오답 해설

- ② 설명문을 읽는 방법이다.
  - ③ 소설이나 극 문학을 읽는 방법이다.
  - ④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나는 논설문을 읽는 방법이다.
  - ⑤ 시에서는 주로 단어의 사전적, 지시적 의미보다는 함축적 의미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기 때문에, 비유나 상징을 통해 드러나는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가)의 화자는 '나'로, 열여섯 살 학생이나 열여섯 살 때의 과거를 회상하는 어른으로 볼 수 있고, (나)의 화자 역시 '나(귀뚜라미)'로 드러나 있다. 따라서 두 시 모두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가)의 화자를 과거를 회상하는 어른으로 볼 수는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구조가 시에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다. (나)는 우는 아이를 대신하여 가을밤 귀뚜라미가 울고 있는 상황을 그려 내고 있으나, 과거를 회상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다.
  - ③ (가)에서는 붕어빵의 상징적 의미가 주제를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에서는 귀뚜라미를 의인화하는 의인법을 사용하여 우는 아이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나, 비유가 드러나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가)와 (나) 모두 각 행마다 비슷한 길이의 시행을 반복하여 운율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⑤ 편지를 보내는 설정은 (나)에서만 쓰였다.
- (가)의 3연을 보면, 화자가 돌아간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방은 썰렁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엄마가 차려 주신 따뜻한 밥상이 있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은 어둡고 차가운 분위기를, ㉡은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따라서 시의 초반에는 어둡고 차가운 분위기가 느껴졌으나, 선재가 몰래 넣어 준 붕어빵을 통해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는 귀뚜라미가 쓴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은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고 있는 아이이다. 화자인 귀뚜라미는 그 아이에게 말을 건네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혼잣말이라고 보기 어렵다.
  - (나)의 화자는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고 있는 아이를 위로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주제는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그리움 또는 그 아이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다.
  - ㉣는 선재가 '나'의 가방에 몰래 넣어 준 붕어빵으로, '나'를 위하는 선재의 따뜻한 마음과 우정, 사랑과 배려가 담긴 소재이다. <보기>에서는 '그 애 아버지'가 '나'에게 따뜻한 조약돌 두 개를 건네며 집에 가는 동안 따뜻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약돌'에는 '붕어빵'처럼 상대방을 위하는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식 창고 - 소재의 의미와 기능**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가 한 편의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글의 재료로, 작가가 작품 속 인물의 심리,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하여 사용함.</li> <li>• 특정 사물, 대상, 환경, 인물의 감정, 행동 등 모든 것이 작품의 소재가 될 수 있음.</li> </ul>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등 유발 및 해소: 동일 소재에 대한 인물들의 가치관이 다르거나, 인물들이 동일한 소재를 추구할 때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음.</li> <li>• 인물의 심리, 성격의 표현: 소재를 대하는 인물의 태도를 통해 인물의 심리나 성격이 드러나기도 함.</li> <li>• 주제의 형상화: 소재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등이 상징적으로 드러나기도 함.</li> <li>•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 소재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거나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되기도 함.</li> </ul>

8. (나)의 ‘해마다 가을날 / 밤이 깊으면 / 갈댓잎 사이로 허영계 / 보름달 뜨면’이라는 구절에서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며, 시간적 배경은 밤이고, 공간적 배경은 갈댓잎이 우거진 갈대밭임을 알 수 있다.

9. (나)에서 아버지는 ‘그렇게 되고 싶어 하던 화가가 못 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다)에서 아버지는 ‘천수기 선생님이 인정하는 화가의 재능을 타고났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는 화가로서의 재능이 있었지만 현재는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와 (아)에서 ‘나’의 직업이 화가임을 알 수 있다.
- ② (아)에서 ‘나’가 자신을 성찰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 ③ (다)~(마)에서 ‘나’가 그림 그리기에 관심이 많고 재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나)에서 ‘나’의 아버지의 직업은 농사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라)에서 ‘나’가 뚜껑이 없는 크레파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나’를 부유한 집안의 아이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미술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도 나와 있지 않다.

10. 이 글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물은 ‘나’이기 때문에 ‘나’가 서술자이며, ‘나’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나’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쓰였다고 할 수 있다.

11. 이 글에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 어린 시절 사건은 (바)와 (사)에 제시되어 있다. (바)에서 ‘나’는 자신이 장원 상을 받은 작품이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에서 ‘나’는 그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사실을 밝히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다. 이런 선택은 (아)에 나오듯이 이후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2. (다)에서 ‘나’는 미술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화가로서의 재능을 자신도 타고났으니 굳이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상작이 뒤바뀌는 사건을 겪은 이후, (아)를 보면, ‘나’가 자신보다 뛰어난 재능을 지닌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은 ‘나’가 수상작이 자기 것이 아님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수상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주 선생님 품에 안겨 울었던 일이 생각나 너무도 부끄러운 마음에 ‘나’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다. 이는 주 선생님이 대한 원망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14. 이 작품은 등장인물인 ‘나’가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서술자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인 ‘나’이다.
- ③ ‘나’가 주인공이자 서술자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 ④, ⑤ ‘나’가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15. (가)와 (나)는 어른이 된 ‘나’가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장면으로 현재 시점에 해당한다. (다)~(바)는 ‘나’의 어린 시절 과거 이야기로 (다)에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이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라)~(바)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을 다루고 있다. (사)는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길거리에서 우연히 백선규를 만나게 되지만 아는 척을 하지 않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16. ‘나’가 경쟁을 싫어하고 귀찮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바), (사)에서 짐작할 수 있다. (바)에서는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 귀찮아 상을 포기하고 있고,

(사)에서는 아는 척을 하는 것이 귀찮아 백선규에게 인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

17. (바)에서 '나'는 백선규를 스쳐 가면서 그의 모습을 본다. 그러고는 그 아이가 느끼게 될 좌절감을 생각하고,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는 게 귀찮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며 사실을 밝히는 것을 그만두게 된다.

18. '나'가 백선규를 시치미를 뚝 떼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한 까닭은 (바)에 제시되는 어린 시절 사건 때문이다. 즉, 수상작이 뒤바뀌어 장원 상을 수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선규가 사실을 밝히지 않고 넘어간 사실을 '나'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19. 이 글은 '1'의 서술자와 '0'의 서술자가 서로 시점을 교차하면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가)와 (나), (다)와 (라)에는 각각 동일한 사건에 대한 두 서술자의 서로 다른 관점이 제시되어 있어서 두 인물의 심리를 비교해 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 오답 해설

①, ⑤ 두 서술자가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② 인물의 대사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두 서술자가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듯이 서술하고 있다.  
 ③ 한 서술자가 아니라 두 서술자가 번갈아 가며 사건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서술자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0. (다)와 (라)에서 두 서술자는 모두 수상작이 뒤바뀐 것을 알면서도 사실을 바로잡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 (가)와 (나)에는 두 서술자가 사생 대회에 참가하여 같은 장소에서 그림을 그린 사건이 서술되어 있고, (다)와 (라)에는 그 사생 대회의 결과 '0'의 서술자가 장원을 하였으나 그 장원을 받은 그림이 사실은 '1'의 서술자 것이었음이 밝혀지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다)와 (라)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22. '1'의 '나'가 '0'의 '나'에게서 받은 인상을 냄새로 표현한 것은 후각적 심상을 사용한 것이고, '땀국물이 흐르던 목덜미'라고 표현한 것은 시각적 심상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0'의 '나'가 무척 가난한 아이임을 생생하게 인상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23. ㉠~㉢은 모두 '0'의 서술자인 남자아이를 가리키는 말이고, ㉣은 '0'의 서술자인 여자아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의 뒤에 쓰인 표현인 '나는 그 사람만 한 재능이 없다.'는 말은, '0'의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장원작이 그 여자아이의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아이가 자신보다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24. ㉠은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가리키는 말로, '나'의 '그 여자애'에 대한 인상을 의미한다. 즉, '나'는 그 여자애와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으며, 경제적 형편도 서로 대조적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만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 논술형 평가 대비하기

84~85쪽

##### (1)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

1. ㉠ 친구가 가방에 몰래 넣어 준 봉어빵을 통해 따뜻한 감동을 느낀다. ㉡ 우는 아이를 대신하여 울고 있는 상황 또는 가을밤에 갈대밭에서 울고 있는 상황 2. 촉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봉어빵에 담긴 따뜻한 우정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다. 3. 시의 화자인 귀뚜라미를 '나(내)'라는 1인칭 대명사로 표현하여 사람이 아닌 곤충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을 사용하였다.

##### (2)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

1. 동일한 사건에 대한 두 인물의 심리와 태도가 대조적으로 드러나 비교하며 읽는 재미가 있다. 2. '1'의 '나'와 '0'의 '나'는 수상작이 뒤바뀐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3. ㉢ 귀찮고 힘든 일이 싫다. ㉣ 부끄럽고 창피하다.

##### (1)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

1. (가)의 화자는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가 학교의 급식 우유를 꺼내 먹으려고 하다가 선재가 넣어 준 봉어빵을 발견한다. 그 봉어빵을 먹으면서 '내 열여섯 세상에 /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가 봉어빵을 통해 따뜻한 감동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화자는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

고 있는 아이를 위로하면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울고 있다. 화자가 귀뚜라미임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가을밤 귀뚜라미가 울고 있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㉔에 화자가 느낀 따뜻한 감동을 서술하였다.	
㉕에 화자가 울고 있는 상황을 서술하였다.	
㉔와 ㉕를 연결된 의미가 드러나게 서술하였다.	

2.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와 '따뜻했던 저녁'에서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촉각적 심상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봉어빵에 담긴 선재의 따뜻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평가 요소	확인(✓)
㉑과 ㉒에 사용된 심상이 촉각적 심상임을 밝혔다.	
분위기 및 주제와 심상과의 관련성을 밝혔다.	
'~함으로써 ~하고 있다.'라는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3. (나)의 화자는 귀뚜라미이지만 사람처럼 '나(내)'로 의인화하여 표현되어 있다. 비유법의 종류로는 곤충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나)에 쓰인 주된 표현 방법을 정확히 서술하였다.	
(나)의 화자의 특징을 표현 방법과 관련지어 서술하였다.	
(나)에 쓰인 시어를 근거로 들어 서술하였다.	

(2)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

1. (가)와 (나)에서 두 서술자가 동일한 사건을 각자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이런 서술 방식 때문에 독자는 같은 상황에 처한 두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비교하며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동일한 사건에 대한 두 인물의 심리와 태도가 대조적임을 서술하였다.	
비교하며 읽는 재미와 즐거움이 있음을 서술하였다.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2. (가)와 (나)에는 수상작이 뒤바뀐 사건에 대한 두 서술자의 내적 갈등이 그려져 있는데, (가)의 '나'는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는 게 귀찮고 이미 상을 받은 아이가 느

낄 좌절감 때문에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나)의 '나'는 주 선생님의 품에 안겨 울었던 일이 생각나 부끄러운 마음에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둘 다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평가 요소	확인(✓)
수상작이 뒤바뀐 사건을 서술하였다.	
둘 다 사실을 밝히지 않았음을 서술하였다.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3. (가)에서 '너절하고 귀찮은 일',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가 싫어'라는 말에서 (가)의 '나'가 귀찮고 힘든 일을 싫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에서 '나'가 그 여자아이를 지나칠 때 눈을 감은 이유는 그 여자아이가 장원작의 주인임을 알아채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장원 소식을 듣고 주 선생님에게 안겨 울던 일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마음에 도저히 사실을 말할 수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㉔에 귀찮고 힘든 일을 싫어하는 마음을 서술하였다.	
㉕에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서술하였다	
㉔와 ㉕를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게 서술하였다.	

## 2 한글은 바르게, 발표는 효과적으로

### (1) 우리의 훈민정음

#### 꼭꼭 확인 문제

92~102쪽

1. ③ 2. 우리 백성들이 쉽게 익혀서 쓸 수 있는 우리 글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3. ① 4. 애민 정신, 실용 정신
  5. ⑤ 6. ③ 7. ② 8. 발음 기관 9. ⑤ 10. ③ 11. ㅅ, ㄹ, ㅈ 12. ‘·’와 ‘—, |’를 결합하여 ‘ㄴ, ㄷ, ㄹ, ㅊ’를 만들고 여기에 다시 ‘·’를 결합하여 ‘ㅆ, ㅌ, ㅍ, ㅊ’를 만들었다. 이러한 원리를 합성의 원리라고 한다. 13. ④ 14. ① 15. ④
  16. 기본 모음자(·, —, |)를 서로 결합하여 나머지 모음자를 만드는 합성의 원리 때문이다. 17. ①
1. 당시 백성들은 한자를 몰라서 책을 읽을 수 없었던 것이지 문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2. 백성들에게 효과 예를 가르치기 위해 나라에서 책을 펴냈으나, 한자를 몰라 책을 읽을 수 없었던 백성들에게는 그 책이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이런 상황을 본 세종 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익혀서 쓸 수 있는 우리 글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글을 창제하게 되었다.
  3. 한글이 창제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우리의 말에 맞는 고유 문자를 가지게 되었으며 백성들도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즉 소수의 지배층들만 문자 생활을 하던 것에서 벗어나 백성들도 문자 생활을 하게 된 것에 한글 창제의 의의가 있다.
  4. ㉠에는 어리석은 백성을 가엾게 여기는 애민 정신이 나타나 있고, ㉡에는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익혀 편하게 쓰도록 하려는 실용 정신이 나타나 있다.
  5. 한글은 기존의 것을 새롭게 변형하여 독자적으로 만든 글자가 아니라, 세종 대왕이 새롭게 스물여덟 자를 만들어 낸 독창적인 글자이다.
  6. ‘ㅃ’은 이미 있는 글자인 ‘ㅂ’을 나란히 붙여서 만든 글자로 세종 대왕이 새로 만든 스물여덟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7.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이다.
  8. 기본 자음자 ‘ㄱ, ㄴ, ㄷ, ㅅ, ㅇ’은 모두 발음 기관을 본

떠서 만들었다.

9. 기본 모음자인 ‘·, —, |’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의 형상을 본떠 만든 글자로, ‘·’에 획을 더하여 ‘—’와 ‘|’를 만든 것이 아니다.
  10. 가획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자음자는 ‘ㅋ, ㆁ, ㅌ, ㅍ, ㅊ, ㅌ, ㅍ, ㅊ, ㅌ, ㅍ, ㅊ’의 9자이다.
  11. ‘ㅇ, ㄹ, ㅈ’은 가획의 원리를 따르지만 획을 더할수록 소리가 세진다는 의미는 없는 예외적인 글자들이다.
  12. 제시된 모음자는 ‘·’와 ‘—, |’를 서로 결합하여 만든 모음자로 합성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13. 자음자와 모음자를 모아쓰면 어떤 글자인지 잘 알 수 있어서 읽기에 편하다. 또한, 한꺼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음절 단위로 빠르고 정확하게 의미를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4.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자를 컴퓨터로 입력하려면, 해당 소리를 로마자로 표기한 후 원하는 한자를 찾아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반면, 한글은 모든 자음과 모음이 자판에 기록되어 있어 다른 문자를 활용하지 않고 쉽고 빠르게 입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속도를 경쟁력으로 하는 정보화 시대에 부각되는 문자이다.
  15. 한글은 24자라는 유한한 수의 기호와 몇 가지 규칙만으로 무한에 가까운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한글은 일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쉽게 글자를 익힐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한 글자가 한 가지 발음으로 읽힌다.”라고 하였다.
  - ② “한글은 소리글자라서 발음이 곧 표기”가 된다고 하였다.
  - ③ “24자라는 유한한 수의 ~ 만들어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 ⑤ “자음자와 모음자의 조합으로 쉽고 빠르게 정보화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16. 제시된 자판에는 한글 모음의 기본자인 ‘·, —, |’의 3자만 나타나 있다. 이렇게 3자만 가지고도 모든 모음을 다 쓸 수 있는 이유는 기본자를 결합하여 나머지 모음자를 만든 합성의 원리 때문이다.
  17. 한글 모음 ‘ㅏ’는 모든 단어에서 같은 소리를 나타내지만, 영어 모음 ‘a’는 단어에 따라 다른 소리를 갖는다. 제시된 자료는 이러한 한글의 특징, 즉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에 대응됨을 보여 주고 있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106~109쪽

1. ④ 2. ③ 3. ① 자주 정신 ㉠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 애민 정신 ㉢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4. ③ 5. ⑤ 6. ② 7. ④ 8. 공통점: 사물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상형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 차이점: 자음의 기본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고, 모음의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다. 9. ② 10. 학, 혁 11. ① 12. ③ 13. ② 14. (나)의 표기 방식상의 특징: 한꺼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단위(음절)를 기준으로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하여 표기하고 있다. / (나)의 표기 방식의 장점: 읽고 쓰기에 훨씬 효율적이다. 15. ① 16.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자를 컴퓨터로 입력하려면 해당 소리를 로마자로 표기한 후 원하는 한자를 찾아 입력해야 하지만, 한글은 다른 문자를 활용하지 않고 쉽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 17. ④ 18. ④ 19. ⑤

1. 세종 대왕은 어려운 한자로는 백성들을 가르칠 수 없음을 알고 백성들이 쉽게서 익혀 쓸 수 있는 우리 글자를 만들고자 하였다. 한자보다 우수한 문자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다.
2. (나)에서는 우리말을 쉽게 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다고 하며 한글의 창제 동기를 밝히고 있다.
3. '자주 정신'은 '남의 간섭이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일을 처리하려는 정신'을 의미하고, '애민 정신'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실용 정신'은 '실질적인 쓸모가 있도록 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4. 'ㅎ'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글자인 'ㅇ'에 획을 두 번 더해 만든 글자이다.
5. 획을 더하는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글자끼리는 입 모양이 같으며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난다. 즉 'ㄱ'에 획을 더해 만든 'ㅋ'은 'ㄱ'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 자음이다.
6. 'ㅇ, ㄹ, ㄷ'은 획을 더하는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글자였으나 가획의 원리와는 달리 소리가 세지는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체자라고 한다.
7. 한글의 기본 모음자는 '·, ㅡ, ㅣ'로 각각 하늘, 땅, 사

람의 형상을 본떠 만들었다. 그리고 이 기본자를 서로 합하여 나머지 모음자들을 만들었는데, 그중 '·'와 'ㅡ'가 결합된 모음자는 'ㅜ'와 'ㅠ'이다.

오답 해설

- ① '·'는 하늘의 둥근 형상을 본떠 만들었다.
- ② 'ㅣ'는 사람을 본뜨되 서 있는 모양으로 하였다.
- ③ 'ㅡ'는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⑤ 기본 모음자인 '·, ㅡ, ㅣ'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었다.
8. 한글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는 모두 상형의 원리를 통해 만들었으나 그 대상이 달랐다. 자음은 발음 기관을 상형하였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형상을 상형하였다.
9. 모음의 기본자에 '·'를 두 번 결합하여 만든 글자는 'ㅜ, ㅠ, ㅠ, ㅠ'이다.
10.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는 'ㅇ'이고 그것에 두 번 획을 더한 자음은 'ㅎ'이다. 또한, '·'와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뜬 기본자(ㅣ)를 결합하여 만든 글자는 'ㅊ'와 'ㅋ'이고,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자는 'ㄱ'이다. 따라서 초성, 중성, 종성을 합쳐 이루어진 글자는 '학'과 '혁'이다.
11. 한글은 기본자와 일정한 원리만 알면 나머지 글자들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이다.

오답 해설

- ② 한글에 우리 민족의 토속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한글은 중국의 한자를 참고하여 만든 글자가 아니라 세종 대왕이 독창적으로 만든 글자이다.
- ④ 영어나 다른 외국어들도 바람 소리, 동물의 울음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 ⑤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일대일로 대응되는 글자이다.
12.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글자는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로, 자음 'ㄱ, ㄴ, ㄷ, ㅌ, ㅇ'과 모음 '·, ㅡ, ㅣ'가 이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자음자 17자와 모음자 11자로 구성되어 있다.
- ② 기본 자음자는 5자이고, 기본 모음자는 3자이다.
- ④ 합성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글자는 'ㅜ, ㅠ, ㅓ, ㅕ, ㅠ, ㅗ, ㅛ, ㅜ, ㅠ'의 8자이다.

⑤ 현재 쓰이지 않는 글자는 ‘·, ㅀ, ㅄ, ㅆ’으로 모두 4자이다.

13. 한글의 종성에는 자음자를 다시 쓰도록 함으로써 종성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지 않아도 모든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14. (나)와 같은 모아쓰기는 한꺼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음절 단위로 자음과 모음을 합쳐 쓰기 때문에 읽고 쓰기에 편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15. (나)와 (다)를 보면 소리글자라서 발음이 곧 표기가 되며, 한 글자가 한 가지 발음으로 읽히는 한글의 특성과 그 장점이 나타나 있다.

16. 속도가 경쟁력이 되는 정보화 시대에 문자를 컴퓨터로 입력할 때 다른 문자보다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강점이 된다.

17. ㉠과 ㉡ 모두 자판에 제시된 모음만으로 우리말의 모든 모음을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에서는 모음의 기본자끼리 결합하는 합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나머지 모음자를 쓸 수 있다.

② ㉠의 글자판에서 ‘ㄱ, ㅋ, ㄷ, ㅌ, ㅂ, ㅍ, ㅈ, ㅊ’ 등을 하나의 글자판에 모아 배열한 것은 소리와 문자 모양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③ ㉡에서는 자음 글자를 만들 때 ‘획추가’ 버튼을 활용하여 나머지 자음자를 만들 수 있다.

⑤ ㉠과 ㉡는 한글의 창제 원리가 휴대 전화 자판에 적용된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18. ‘·’에 ‘ㅅ’를 결합하면 ‘ㅆ’가 만들어지고, ‘ㄴ’를 결합하면 ‘ㄴ’가 만들어진다.

**오답 해설**

① ‘ㄴ, ㄴ’는 ‘·’에 ‘ㄴ’를 결합하여 만든 글자이다.

② ‘ㅅ, ㅅ’은 기본자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이지만 ‘ㅎ’은 ‘ㅇ’에 획을 두 번 더하여 만든 글자이다.

③ ‘ㄴ’은 기본자 ‘ㄴ’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이지만 획을 더한 이유가 소리가 세지기 때문은 아니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만들어진 글자를 이체자라고 한다.

⑤ ‘ㅅ’은 상형의 원리에 의해 만든 글자이고, ‘ㅆ’은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이다.

19. <보기>의 자료는 소리와 문자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한글의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2) 정보를 담은 그림, 픽토그램**

**꼭꼭 확인 문제** 113~117쪽

1. ③ 2. ② 3. ① 4. ⑤ 5. 청중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다. / 발표의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보여 줄 수 있다.(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6. ② 7. ② 8. ⑤ 9. ⑤ 10. 픽토그램을 사용하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경기 종목과 사용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① 12. ③ 13. ② 14. ⑤

1. 이 발표의 목적은 픽토그램에 대한 정보 전달이다. ③은 유기 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자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청중을 설득하기 위한 말하기에 어울리는 주제이다. ③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에 어울리는 주제로 볼 수 있다.

2. 발표의 핵심 정보는 발표의 중간 부분에 나타나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장실 픽토그램이 제시되어 있다.

③ 1의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에 첫인사 및 자기소개가 나타나 있다.

④ 1의 셋째 문장에는 발표의 목적이 나타나 있고 2의 마지막 문장에는 발표 주제가 제시되어 있다.

⑤ 화장실 픽토그램을 통해 픽토그램의 예를 보여 주고 있다.

3. 발표에서 핵심 정보는 발표의 중간 부분에 나타나는데, 3에는 픽토그램의 어원과 뜻이 제시되어 있다.

4. 3에서 픽토그램은 사물, 시설, 행위, 개념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일종의 그림 문자라고 하였다. 따라서 구체성을 띤 그림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5. 발표할 때 매체 자료를 제시하면 청중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발표의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보여 줄 수 있어서 효과적이다.

6. 발표에서 매체를 활용할 때는 다양한 종류의 매체를 제시하기보다 발표 내용이나 주제에 맞는 매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7. 5에서는 픽토그램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
8.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올림픽 픽토그램이 개최국의 개성까지 표현하고 있다고만 하였을 뿐 정보 전달적 기능이 약화되었다고는 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5에서 최초의 픽토그램은 1909년 프랑스 파리에서 그림 문자 형태의 교통 표지판이 국제 협약으로 인정받게 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 ② 5에서 산업 혁명으로 인해 나라 간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픽토그램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 ③ 7에서 올림픽 픽토그램은 베를린 올림픽 때 경기 종목별 픽토그램이 만들어지면서 탄생했다고 하였다.
- ④ 5에서 나라 간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픽토그램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9. 이 발표에서는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발표 내용에 알맞은 시각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10. 올림픽에서 픽토그램이 중요하게 쓰인 이유는 6에 제시되어 있다.
11. 10에서 픽토그램은 정보를 담은 그림으로 국적과 언어, 문화를 뛰어넘어 의미를 전해 주는 중요한 기호라고 하였다. 따라서 정보를 담은 현대판 그림 문자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픽토그램은 상징적인 기호 체계로 볼 수 있지만 비유적이며 함축적인 기호 체계는 아니다.
- ③ 픽토그램이 올림픽에서 쓰이면서 국가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수단이 된 것은 맞지만, 그것은 픽토그램의 기능 중 일부일 뿐이다.
- ④ 픽토그램이 재미와 생동감을 주는 예가 9에 나타나 있으나, 그것만으로 픽토그램을 설명할 수는 없다.
- ⑤ 픽토그램이 언어와 국적, 문화를 뛰어넘어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시대를 초월하는 것은 아니다. 픽토그램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12. 이 발표의 끝부분인 10에서는 픽토그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13. ㉠은 ㉡에 비해 감성을 잘 표현한 픽토그램으로 정보 전달적 기능은 ㉠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14. 이 발표에서는 올림픽 개최 연도 순서대로 올림픽 픽

토그램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올림픽 픽토그램을 선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시험엔 이렇게!!**

118~124쪽

1. ⑤ 2. ④ 3. ② 4. ④ 5. ④ 6. ③

- 19세기 산업 혁명은 픽토그램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으나, 산업 혁명 때 최초의 올림픽 픽토그램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올림픽 픽토그램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처음 만들어졌다.
- 이 발표에 나타난 핵심 정보는 올림픽 픽토그램을 통해 본 픽토그램의 역사이지, 올림픽의 역사는 아니다.
- 이 발표에서 발표자는 픽토그램의 역사를 설명할 때 그 내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조직하였다. 픽토그램의 역사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 처음 부분에서도 청중의 흥미를 끌거나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매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발표는 청중 앞에서 하는 말하기이므로 구어체로 발표문을 쓰는 것이 좋으며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계속 소리 내어 읽어 보는 것도 중요하다.
- 발표 내용에 맞는 적절한 손짓, 몸짓 등의 동작이 있어야 생동감 있는 발표가 될 수 있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127~130쪽

1. ④ 2. ④ 3. ② 4. ⑤ 5. 픽토그램의 기원 6. ③ 7. ③  
 8. 지나치게 많은 정보(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청중의 이해를 방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9. ② 10. ① 11. ④ 12. ③ 13. 발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청중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4. ② 15. ⑤ 16. ④ 17. 국적과 언어, 문화에 상관 없이 경고나 안내, 지시 등의 의미를 누구에게나 바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매체 자료를 활용할 때는 발표 주제나 내용에 맞는 것으로 하되, 화자의 관심이 아니라 청자의 관심을 고려해야 한다.
- 이 발표의 목적은 그림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픽토그

램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 3. (라)에서는 픽토그램이 오늘날 주목받는 이유를 원인과 결과의 방법에 따라 전개하고 있고, (마)에서는 픽토그램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픽토그램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원인과 결과의 방법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 4. 그림 자료를 통해 (다)에서 설명하고 있는 픽토그램의 어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달하고 있다.
- 5. (마)에서는 최초의 픽토그램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즉 픽토그램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6. 효과적으로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발표 상황이나 내용 등에 어울리는 동작을 취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마지막 문장은 청중이 자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네는 말이다.
- ② 공적인 말하기이므로 또래 친구 앞에서 하는 발표라도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
- ④, ⑤ 시각 매체 자료를 통해 픽토그램의 예를 보여 주며 쉽고 재미있게 대상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7. 2000년대 이후 올림픽 픽토그램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최국의 개성이나 국가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올림픽 픽토그램이 개최국의 개성을 표현하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8. 지나치게 많은 정보나 불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청중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계획을 바꾼 것이다.
- 9. 이 발표에서는 '정보를 담고 있는 그림 문자'로서의 픽토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오늘날의 픽토그램 중에는 감성을 담은 것도 있으나 그것을 픽토그램의 핵심적 요소라고 볼 수 없다.
- ③ 픽토그램은 서로 다른 언어 사용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든 그림 문자이므로 나라를 초월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으나,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시대를 초월하는 언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④ 올림픽 픽토그램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으나, 이 발표의 주제를 픽토그램과 올림픽의 연관성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

⑤ 픽토그램이 상징성을 띤 것은 맞지만, 간결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구체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10. (가)의 핵심 정보는 '픽토그램의 기원'이다. 산업 혁명은 픽토그램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다.
- 11. 픽토그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우선 픽토그램의 뜻을 설명해야 한다. [(나)] 그다음 픽토그램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기원을 설명하고 [(가)] 올림픽에서 픽토그램이 어떻게 쓰였는지 [(라)], 최근의 픽토그램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알려 주며 [(마)] 발표를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 12. ㉠은 감성까지 담은 픽토그램의 사례로, 정보 전달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픽토그램에 비해 정보 전달의 역할이 약해졌다고 할 수 없다.
- 13. 발표 내용을 구성할 때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면 발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나므로 청중이 발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14. 픽토그램은 사물, 시설, 행위, 개념 등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나타낸 일종의 그림 문자이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대신 나타내는 것과는 다르다.
- 15. (바)는 발표의 끝부분으로 앞에서 나온 픽토그램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청중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16. (라)에서는 개최 연도 순서별로 모든 올림픽 픽토그램 자료를 제시하는 것보다 내용에 맞게 선별해서 몇 개만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17. 픽토그램은 국적, 언어, 문화에 관계없이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단원 평가 대비하기**

133~135쪽

- 1. ⑤ 2. ① 3. ④ 4. ㉠: ㄱ, ㄴ, ㄹ, ㅁ, ㅂ, ㅅ, ㅇ ㉡: ㄱ ㉢: ㄴ ㉣: ㄹ ㉤: ㅅ ㉥: ㅇ 5. 모음의 기본자인 '·, ㅡ, ㅣ'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의 형상을 본뜬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 6. ③ 7. ② 8. 1909년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협약으로 채택된 최초의 교통 표지판 9. ⑤ 10. ⑤ 11. ②

1. 한글 창제 이전에는 중국 문자인 한자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은 문자 생활을 할 수 없었다. 한자를 빌려 우리말처럼 쓰는 방식이 존재하였으나, 그것도 결국은 한자를 알아야만 문자 생활을 할 수 있었다.
2.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자를 만든 것이지만 한자와 통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 한글을 창제한 것이 아니다.
3.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를 상형의 원리로 만들고 나머지 글자는 가획의 원리와 합성의 원리 등을 활용하여 규칙적으로 확대해 나갔기 때문에 배우기 쉬운 글자라는 점에서 과학성을 인정받았다.
4. 기본 자음자 ‘ㄱ, ㄴ, ㄷ, ㄱ, ㅇ’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는데,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ㄷ, ㅌ, ㅇ’은 각각 입 모양, 이의 모양,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5. 모음의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
6. (라)에 보면 2000년 이후의 올림픽 픽토그램은 개최국의 개성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오답 해설**

- ① 산업 혁명은 픽토그램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되었으며, 최초의 픽토그램은 산업 혁명 이후인 1909년에 만들어졌다.
- ② 픽토그램은 국적, 언어와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시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④ 최근에 나타난 픽토그램은 감성까지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을 뿐 정보 전달의 기능보다 감성을 중요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 ⑤ 픽토그램은 사물, 시설, 행위, 개념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7. 발표의 시작 부분이 아니라 중간 부분에서 픽토그램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픽토그램의 뜻과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
8. (다)에서는 최초의 픽토그램인 1909년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협약으로 채택된 교통 표지판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9. ㉞의 자판에 ‘·’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획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나머지 모음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합성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10. (나)는 픽토그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발표이므로, 청중을 설득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호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11. ‘ㄷ, ㅌ’은 소리의 특성을 반영하여 ‘ㄴ’에 획을 더한 가획의 원리가 사용되었으나, ‘ㄹ’은 획을 더하기는 하였으나 소리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이체자이다.

**논술형 평가 대비하기**

136~137쪽

(1) 우리의 훈민정음

1.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에서 자주 정신이 나타나고,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점에서 애민 정신이 나타난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하였다라는 점에서 실용 정신이 나타난다.
2. ① 자음의 기본자인 ‘ㄱ, ㄴ, ㄷ, ㄱ, ㅇ’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으므로 상형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② ‘ㅋ, ㆁ, ㅌ, ㅍ, ㅊ, ㅌ, ㅎ, ㅎ’은 기본자에 소리가 세지는 특성을 반영하여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③ ‘ㅇ, ㄹ, ㄹ’은 획을 더하는 원리를 따랐으나 소리가 세지는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이체자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3. ㄱ, ㄷ, ㄱ, ㄱ, ㅌ, ㅌ, ㅌ / 모음자는 기본자 3자를 서로 합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8자를 만들어서 총 11자를 완성하였다.
4. 한글 모음 ‘ㅏ’는 모든 단어에서 같은 소리를 나타내지만, 영어 모음 ‘a’는 단어에 따라 다른 소리를 갖는다. 이처럼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일대일로 대응하므로 다른 어떤 문자보다 손쉽게 변화하는 의사소통의 방식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의사소통 방식에서도 위력을 떨칠 것이라고 한 것이다.

(2) 정보를 담은 그림, 픽토그램

1. 호주 원주민의 부메랑을 주제로 하여 만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픽토그램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 올림픽 픽토그램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 개최국의 개성까지 표현하고 있다. 2. 픽토그램은 정보를 담고 있는 그림 문자이다. 3. ㉠처럼 줄글로 구성하는 것보다 ㉡처럼 그림 형태로 나타내면 핵심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현할 수 있다. 4. 첫인사 및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발표를 하게 된 동기나 목적, 발표 주제를 제시해야 한다.

(1) 우리의 훈민정음

1. 『훈민정음』의 서문에는 한글의 창제 정신 3가지(자주 정신, 애민 정신, 실용 정신)가 나타나 있다. 한자가 우리 말과 달라 한자로 우리말을 적는 데 적합하지 않으므로 새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에서 자주 정신을, 백성이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겼다는 점에서 애민 정신을, 백성들이 새 문자로 문자 생활을 편하게 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에서 실용 정신을 엿볼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훈민정음』 서문의 내용을 근거로 자주 정신을 서술하였다.	
『훈민정음』 서문의 내용을 근거로 애민 정신을 서술하였다.	
『훈민정음』 서문의 내용을 근거로 실용 정신을 서술하였다.	

2. 한글 자음자 17자를 창제한 3가지 원리는 상형의 원리, 가획의 원리, 이체자의 원리이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로 기본 글자 5자를, 상형으로 만든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해 9자를, 상형과 가획의 원리에서 벗어나 3자를 만들었다.

평가 요소	확인(✓)
해당 자음자를 제시하고 상형의 원리에 대해 서술하였다.	
해당 자음자를 제시하고 가획의 원리에 대해 서술하였다.	
해당 자음자를 제시하고 이체자의 원리에 대해 서술하였다.	

3.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ㅂ, ㅍ, ㅅ, ㅈ, ㅊ, ㅍ, ㅍ, ㅍ’는 모음의 기본자 3자를 서로 합하는 방식(합성의 원리)으로 만든 모음자이다.

평가 요소	확인(✓)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ㅂ, ㅍ, ㅍ, ㅍ’를 빈칸에 맞게 제시하였다.	
기본자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모음자를 만든 원리를 서술하였다.	

4. 한국어는 소리와 문자가 일대일 대응을 이루지만, 로마자로 기록된 영어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미래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한글이 위력을 떨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평가 요소	확인(✓)
한글의 모음과 영어 모음이 어떻게 소리 나는지를 서술하였다.	
소리와 문자가 일대일로 대응되는 한글의 특성을 서술하였다.	
(나)의 자료를 근거로 (가)에서 미래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한글이 위력을 떨칠 것이라고 한 까닭을 서술하였다.	

(2) 정보를 담은 그림, 픽토그램

1. 제시된 매체 자료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픽토그램으로, 2000년대에 들어와 올림픽 픽토그램이 개최국의 개성까지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평가 요소	확인(✓)
제시된 매체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서술하였다.	
발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요약하였다.	
두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2. 픽토그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보를 담은 그림 문자라는 것이다.

평가 요소	확인(✓)
설명 대상의 핵심적인 의미가 드러나도록 서술하였다.	
20자 내외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3. ㉠은 글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의 매체 자료는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자료는 줄글로만 구성된 자료보다 핵심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

평가 요소	확인(✓)
㉠과 ㉡의 자료를 비교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제시된 문장 조건에 맞게 서술하였다.	

4.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는 첫인사 및 간단한 자기소개가 나타나 있다. 다음 문장에는 발표를 하게 된 동기와 발표 목적이 나타나 있고 마지막 문장에는 발표 주제가 제시되어 있다.

평가 요소	확인(✓)
첫인사 및 간단한 자기소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발표를 하게 된 동기나 목적, 발표 주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 4 함께 이해하는 설명

## (1) 세금, 얼마나 알고 있나요

### 꼭꼭 확인 문제

165~169쪽

1. ④ 2. ① 3. ② 4. ① 5. ②에는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정의'는 어떤 사물이나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밝혀 주는 설명 방법으로, ②에서는 '세금'의 뜻을 명확하게 밝혀 풀이하고 있다. 6. ③ 7. ③ 8. ④ 9. ② 10. ④에서는 '세금을 누가 거두어들이느냐(세금을 걷는 주체)', ⑤에서는 '세금을 걷는 방식'을 기준으로 세금의 종류를 나누고 있다. 11. ③ 12. ② 13. ② 14. ⑤ 15. 경아가 옷을 사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판 것이 잡히지 않아 주인은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이익을 보고, 경아 또한 부가 가치세를 내지 않고 옷을 삼으로써 탈세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1. 이 글의 갈래는 설명문이다. 설명문은 지식이나 정보를 알기 쉽게 풀이하여 독자를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 오답 해설

- ②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독자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논설문이다.
- ⑤ 글쓴이의 주관적인 정서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문학적인 글, 즉 시나 소설, 수필 등이다.

2. 이 글에서는 세금을 걷는 방식의 국가별 차이점은 설명하지 않았다.

#### 오답 해설

- ② ①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에 납세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 ③, ④ ②에서 세금이란 국가가 나라 살림을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이 법에 따라 내는 돈이라고 하였다.
- ⑤ ③에서 세금이 국민의 안전, 질서, 교육, 사회 보장, 도로나 공공시설 건설 등을 위해 쓰인다고 했으므로 이로 미루어 볼 때 세금은 결국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3. ③에서 정부가 하는 일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법률 제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법률 제정'은 국회에서 하는 일이다.

4. 국민의 의무를 강조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인용한 것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세금 납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5. ②에는 세금의 뜻을 명확하게 밝히는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6. ④에서 '국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국세'의 예는 들지 않았다. 소득세나 상속세, 재산세는 직접세의 예이다.

#### 오답 해설

- ①, ④ ⑦에서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으므로 소득이 많으면 직접세도 많이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므로 소득의 격차를 줄여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 ② 물건을 살 때마다 내는 세금은 간접세에 해당하는 부가 가치세이다.
- ⑤ 물건에 매겨진 부가 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다.

#### 지식 참고 -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

- 국세: 중앙 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 관세청에서 거두는 세금으로 내국세와 관세가 있다. 내국세에는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교육세 따위가 있고, 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따위가 있다.
-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 자치 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시·군·구의 행정 기관에서 거두는 세금으로 취득세, 등록세 따위의 보통세와 도시 계획세와 같은 목적세가 있다.

7. ④는 세금을 거두는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는 '구분'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였다. ⑤도 세금을 걷는 방식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는 '구분'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였다.

#### 오답 해설

- ①, ② '비교'는 두 대상의 공통점을, '대조'는 두 대상의 차이점을 견주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 ④ '예시'는 어떤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 ⑤ '인과'는 어떤 사물 또는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밝혀 주는 설명 방법이다.

8. 7과 8은 간접세와 직접세의 특징을 서로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조'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서양의 벽난로와 한옥의 구들을 견주어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한 ④이다.

**오답 해설**

- ① 여드름의 뜻을 풀이한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② 혈액을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를 나누어 설명한 '분석'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③ 동사의 뜻을 풀이하는 '정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⑤ 버섯 연구가의 말을 그대로 가져온 '인용'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9. 간접세는 물건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들을 이를 세금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물품의 가격으로 느낀다. 따라서 이런 간접세가 사라지면 물품의 가격에서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물품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간접세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된 부가 가치세도 국세이다.
  - ③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 것은 간접세이다.
  - ④ 간접세가 사라지면 개인이나 회사가 직접 내야 하는 직접세만 남게 된다.
  - ⑤ 소득에 따라 세금이 누진적으로 적용되어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직접세이다. 간접세가 사라지면 직접세만 남게 되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10. 4에서는 세금을 누가 거두어들느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었고, 5에서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걷느냐 간접적으로 걷느냐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었다.
11. 이 글은 세금의 종류, 직접세와 간접세의 장단점에 관하여 글쓴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쓴 설명문이다. 글쓴이의 주관적인 견해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논설문의 특징이므로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12. 탈세를 막기 위해 영수증 주고받기를 권장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간접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간접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어서 물건을 사면 자동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
  - ③ 직접세는 소득에 따라 세금을 많이 매기기 때문에 소득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
  - ④, ⑤ 간접세는 정부의 입장에서 세금을 걷기 쉽지만 소득의 차이 없이 동일한 세금을 내므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직접세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세금을 매기기 위해 일일이 조사해야 하므로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걷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소득 격차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
13. ㉠은 세금을 걷을 때의 편리성을 기준으로 간접세와 직접세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14.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동시에 있다는 뜻을 가진 한자성어는 '일장일단(一長一短)'이다.

**오답 해설**

- ① 일장춘몽(一場春夢):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유명무실(有名無實):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음.
  - ③ 주객전도(主客顛倒): 주인과 나그네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다는 뜻으로, 사물의 가볍고 무거움·앞뒤·느리고 급함 따위가 서로 뒤바뀔을 이르는 말
  - ④ 장단상교(長短相較): 길고 짧은은 상대적인 관계에서 비교할 수 있음을 이르는 말
15. 상인이 현금을 받고 옷값을 10% 깎아 주겠다는 것은 결국 경아가 부담해야 할 부가 가치세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물건을 사고 판 흔적을 없애 자신의 소득을 줄여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의도이며 경아 또한 부가 가치세를 내지 않아 탈세를 하게 된 것이다.

**시험엔 이렇게!!**

170~174쪽

1. ⑤ 2. ③ 3. ③ 4. 소리를 내는 방법 5. ② 6. ⑤ 7. ⑦  
 ⑦ 부נם기, ㉠ 고래, ㉡ 개자리, ㉢ 굴뚝 8. ④ 9. ③

- 1. 유명인의 말을 글의 처음 부분에 인용한 것은 설명 대상인 '세금'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이다.
- 2. 이 글의 갈래는 설명문으로, 세금의 필요성과 종류를 독자에게 알리기 위해 쓴 글이다.

3. 직접세란 무엇인지 그 뜻을 풀이하는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4. <보기>에서 악기의 종류를 나눈 기준은 '소리를 내는 방법'이다.
5. 두 대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대조'이다.
6. 분류와 구분은 둘 이상의 대상에 관해 일정한 기준으로 그 종류를 갈라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때 일정한 상위 개념으로 묶어 나가는 것을 분류라 하고,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 나가는 것을 구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설명 방법에 따라 글을 쓰면 여러 대상이 지닌 특성을 효과적으로 알 수 있고, 복잡한 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7. (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열기를 띤 연기가 '부넝기 → 고래 → 개자리 → 연도 → 굴뚝'으로 빠져나간다고 설명하였다.
8. ④는 집을 지을 때 사용한 재료에 따라 '벽돌집, 나무집, 돌집'으로 나누고 있으므로 '구분'의 설명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9. <보기>는 '구들은 잠시만 때도 열이 오래도록 지속된다.'에서 결과를, '온돌의 부넝기와 개자리 같은 장치와 열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기 때문이다.'에서 원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인과'의 설명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178~179쪽

1. ④ 2. ② 3. ⑤ 4. ③ 5. 유명인의 말을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국민의 의무인 세금 납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6. ③ 7. ⑤ 8. ③ 9. ③

1. 이 글은 설명문이다.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독자에게 설득하는 것은 논설문의 특징이다.

오답 해설

- ① 설명문은 주로 '처음-중간-끝'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글이다.

- ② 설명문은 독자가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하여 독자를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③ 설명문은 객관적인 정보와 사실을 전달하는 글이다.
- ⑤ 설명문은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대상에 알맞은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서술한다.
2. 간접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물건 값에 포함된 간접세를 국가에 내는 사람은 물건을 판 사람이다.
3. 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법인세는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매겨 직접 걷는 직접세이고, 부가 가치세는 간접세이다.
4. ①은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한 '구분'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설명 방법이 사용된 것은 시를 내용에 따라 나눈 ③이다.

오답 해설

- ①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이 사용되었다.
- ② 오징어와 문어의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는 '대조'가 사용되었다.
- ④ 시와 수필의 공통점을 들어 설명하는 '비교'가 사용되었다.
- ⑤ 씨름과 그네의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는 '대조'가 사용되었다.
5. 유명한 인물인 케네디의 말을 인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며,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강조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6.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조사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직접세이다.
7. '반면에'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앞부분과는 다른 내용을 알려 주는 표지로, (가)와 (나)처럼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는 '대조'의 방법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곳에 자주 사용된다.
8. (다)에는 두 대상을 견주어 설명하는 '대조'가, (라)에는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9. 구들장 아래의 긴 통로가 '고래'라고 하였으므로 ㉠ 부분이다.

## (2) 설명하는 글 쓰기

### 꼭꼭 확인 문제

182~188쪽

1. ⑤ 2. (마)는 대상 간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견주어 설명하는 비교·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3. ① 4. ⑤ 5. 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6. ④ 7. ③ 8. ③ 9. ⑤ 10. ⑤

- (가)는 자전거를 구성하는 각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마)는 발효와 부패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견주어 설명하는 '비교·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정의'는 어떤 사물이나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밝혀 주는 설명 방법이므로 인물의 외모를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인물의 외모는 그림을 그리듯 생생하게 표현하는 '묘사'의 방법으로 서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해설

- '인과'는 원인과 결과에 따라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이므로 인물의 성격이 변한 이유와 그 결과를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 '예시'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드는 설명 방법이다. 따라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다.

### 지식 창고

- 인과: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한 원인 또는 이러한 원인에 의해 결과적으로 초래되는 현상에 관계되는 사고 유형
- 과정: 일의 과정에 초점을 두어 글을 쓰는 방식으로 특성이나 결과를 가져오는 일련의 행동, 변화, 기능 또는 단계를 밝히는 내용이 주가 되는 방법

- 버섯의 뜻을 정의하고, 버섯을 이루는 각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지식 창고

#### 분류와 분석

- 분류: 대상이나 개념이 뒤섞여 있는 집합체에서 유사점에 바탕을 두어 그것을 그룹별로 묶는 방법
- 분석: 하나의 대상이나 개념에만 관계되며 차이점에 바탕을 두어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각 부분을 분리해 내는 방법

#### 분류와 구분

- 분류와 구분: 어떤 대상들이나 생각들을 공통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구분 짓는 방법으로, 하위 항목을 상위 항목으로 묶어나가는 것을 분류, 상위 항목을 하위 항목으로 나누는 것을 구분이라고 한다. 분류와 구분은 대상의 범주를 명확하게 하려 할 때 사용되며, 다양한 사물들을 논리적 질서로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 분류와 구분의 원칙
  -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 기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 선정된 대상의 속성을 모두 규명해야 한다.

- 글쓰기가 관심이 있고 잘 알고 있는 글감일 때 좀 더 충실한 정보를 글에 담을 수 있고 설명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자료를 정리하느라 너무 큰 노력이 들어가면 정작 글을 쓸 때 힘이 빠질 수 있다. 자료의 정리는 단순하게 비슷한 항목으로 함께 합칠 수 있는지만 판단하면 된다.

### 지식 창고

#### 정보의 체계화와 재구성

청자나 독자의 관심, 요구, 수준 등을 고려	중요한 정보는 비중 있게 다루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삭제함.
	전달자의 주관을 개입시켜 정보 전달의 목적을 왜곡해서는 안 됨.
	정보의 왜곡이나 진위 여부 등을 다양한 경로로 검증해야 함.

#### 정보가 갖추어야 할 조건

- 사실과 일치해야 한다.
-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 출처가 분명해야 한다.
- 다양하고 풍부해야 한다.

- 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 청자나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 정보의 수집 방법

설명하려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성공적으로 전달하려면,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관련 서적, 방송, 인터넷뿐 아니라 전문가의 견해, 관련자의 증언 등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 실험, 검색 등과 같은 다양한 탐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7. 문단이나 문장, 단어 수준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은 글을 다 쓴 후의 일이다.
8. 설명문의 구성 단계에서 맺음말은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여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9. 한 편의 글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면 독자는 이해하기 혼란스럽다. 글 전체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글의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 독자는 글쓴이의 생각을 이해하기 쉽다.
10. 매체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내용의 적절성을 점검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다.

####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192~193쪽

1. ② 2. ② 3. ① 4. 두 사물을 견주어 공통점을 중심으로 다루는 '비교'와 차이점을 중심으로 다루는 '대조'가 사용되었다. 5. ① 6. (라), '떡볶이 만드는 법'은 절차와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설명하는 '과정'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7. ② 8. ⑤ 9. ③

1. 설날의 대표적인 세시 풍속으로 차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2. <보기>에는 대상을 분해하여 그 부분 또는 요소를 자세히 설명하는 '분석'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구조'는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름, 또는 그렇게 이루어진 일개'를 뜻하는 말이므로 '컴퓨터의 구조'가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3. 온실 효과로 인해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4. '발효'와 '부패'를 견주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해설

- ①은 '분류·구분', ③은 '정의', ④는 '비교·대조', ⑤는 '인과'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5. '곰팡이의 한 종류인 버섯은~말한다'는 '정의'의 설명 방법, '버섯은~자란다.'는 분석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였다.
  6. 어떤 일을 절차와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설명하는 '과정'의 설명 방법은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 요리 방법, 물건 제작 방법 등을 설명할 때 유용하다.
  7. 설명문이므로 객관적인 정보를 독자가 알기 쉬운 말로 서술해야 한다. 주관적인 견해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논설문의 특성이다.
  8. '스티그마 효과'는 '피그말리온 효과'와 대조되어 '피그말리온 효과'의 의미를 더욱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주제와 긴밀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생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9. 정보를 찾은 순서대로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 단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조직한다.

#### 대단원 평가 대비하기

196~199쪽

1. ① 2. ③ 3. ④ 4. ④ 5. 직접세의 장점은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세금을 걷기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6. ③ 7. ③ 8. 사물이나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밝혀 주는 인과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9. ①, ⑤ 10. ②: 개요 작성하기 11. ⑤ 12. ④ 13. ② 14. ⑤ 15. ② 16. ③ 17. ⑤ 18. ④ 19. ②

1. 이 글은 객관적인 정보와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이다.
2. 법인세는 기업이 물건을 샀을 때 내는 세금이 아니라, 기업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 지식 참고 - 법인과 법인세

- 법인: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법인세: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라 할 수 있다.

3. '분석'은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고, '인과'는 어떤 사물 또는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밝혀 주는 설명 방법으로 (가)~(라)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ㄱ. (다)의 '세금은~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에 '구분'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ㄴ. (가)의 '세금이란 국가가~돈을 말한다.'와 (다)의 '직접세는~세금을 말한다.' 등에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ㄷ. (라)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4. (마)에는 간접세와 직접세의 차이점이 '대조'의 설명 방법으로 서술되었다. '대조'란 설명 대상들의 대비되는 성질이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므로 대조되는 대상들은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것이 적절하다. ④의 '홍차'와 '자동차'는 종류가 달라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5. 직접세는 세금을 걷기 어렵지만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간접세는 세금을 걷기 쉽지만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는 없다.
6. <보기>는 신분에 따라 한복을 달리 입는 사실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다)도 설날의 대표적인 세시 풍속으로 '차례'를 예로 들고 있으므로 둘 다 '예시'의 설명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7. (나)에는 마술이란 무엇인지 그 뜻을 풀어 설명하는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정의'를 사용하면 대상이나 현상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8. (바)에는 온실 효과가 원인이 되어 해수면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인과'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9. <보기>에는 버섯의 뜻을 풀이한 '정의'의 설명 방법과, 버섯의 구조를 나누어 설명한 '분석'의 설명 방법이 사

용되었다.

10. 설명문을 쓰기 위해 글감을 선정하고 정보를 수집, 정리한 뒤에는 개요를 작성한다. 개요란 글에서 쓸 주요 내용을 간결하게 추려 쓴 것으로, 개요를 작성하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글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쓰는 데 도움이 된다.

11. 수집한 정보는 모두 제시하기보다는 글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선택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12. (가)~(라)는 모두 설명하는 글이므로 제시된 정보가 객관적인 것인지 파악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다.

13. (가)와 (나)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대조하며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14. 컴퓨터를 이루는 세부 요소들을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공통점을 들어 설명하는 '비교'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② 물이 이용되는 여러 가지 예(생활용수, 농업용수, 전기를 일으키는 데 쓰이는 물)를 낱알이 죽 늘어놓는 '열거'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③ 컴퓨터의 고장 원인을 설명하는 인과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④ 김치를 주재료에 따라 배추김치, 무김치, 부추김치 등으로 나누는 '구분'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구분'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설명하는 설명 방법이다.
15. '붉고 작은 종기'는 여드름을 가리키는 말로, 여드름의 원인이 아니다.
16. 이 글에는 설명 대상을 다른 것에 빗대는 비유적인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17. (마)의 마지막 문장은 의문 형식으로 끝내고 있지만 이는 답을 필요로 하는 의문문이 아니다. 이는 일부러 의문 형식으로 제시하여 독자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여유를 주어서 '긍정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표현법을 설의법이라고 한다.
18. (라)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와 반대되는 스티그마 효

과를 설명하면서 피그말리온 효과와 스티그마 효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19. ㉠에는 대상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는 한옥의 뜻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논술형 평가 대비하기

200~201쪽

(1) 세금, 얼마나 알고 있나요?

1. 이와 같은 설명문에서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설명하는 까닭은 독자가 설명 대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 인용, 유명인의 말을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국민의 의무인 세금 납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3. 대조의 설명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마)와 <보기>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점을 견주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설명하는 글 쓰기

1. 설명하는 글은 크게 ‘머리말-본문-맺음말’로 짜임을 정하는 것이 좋다. 머리말에서는 설명 대상을 밝히고, 본문에서는 설명하려는 내용을 짜임새 있게 배치하며, 맺음말에서는 전체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예시 답> 수집한 정보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살핀다. / 자료가 읽는 이의 수준에 맞는지 살핀다. / 수집한 정보가 정확한지, 출처가 분명한지를 살핀다. / 자료의 정리에 너무 큰 노력이 들지 않도록 한다. 3. <예시 답> ·우정: 우정이란 친구 사이의 정을 뜻한다. ·방학: 학교에서 학기나 학년이 끝난 뒤 또는 더위, 추위가 심한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쉬는 일. 또는 그 기간이다. ·만화: 만화는 이야기 따위를 간결하고 익살스럽게 그린 그림이다.

(1) 세금, 얼마나 알고 있나요?

1. 이 글의 갈래는 설명문이다. 설명문은 글쓴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설명 대상에 알맞은 설명 방법을 사용한다.

평가 요소	확인(✓)
설명문의 갈래를 밝혔다.	
설명문의 목적과 관련지어 서술하였다.	
맞춤법에 맞고 문맥이 자연스럽게 서술하였다.	

2. (가)는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인용의 설명 방식을 사용하면 설명하는 내용에 대

한 신뢰감을 높여 주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할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설명 방법을 밝혔다.	
그 효과와 의도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맞춤법에 맞고 문맥이 자연스럽게 서술하였다.	

3. (마)는 직접세의 장단점을 서술하고 <보기>는 이와는 다른 간접세의 장단점을 서술함으로써 두 대상의 차이점을 견주는 ‘대조’의 설명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평가 요소	확인(✓)
대조의 설명 방법을 밝혔다.	
대조의 설명 방법인 까닭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맞춤법에 맞고 문맥이 자연스럽게 서술하였다.	

(2) 설명하는 글 쓰기

1. 이 글은 ‘머리말-본문-맺음말’의 3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 머리말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의 뜻과 유래를 언급하며 설명 대상을 소개하였으며, 본문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의 입증 사례를 들고 스티그마 효과와 비교·대조하였다. 맺음말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였다.

평가 요소	확인(✓)
글의 구성 단계를 언급하였다.	
각 구성 단계의 특징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맞춤법에 맞고 문맥이 자연스럽게 서술하였다.	

2. 글감이 정해지면 그것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찾아야 한다. 자료를 찾을 때는 먼저 책,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관련된 자료를 모두 찾은 뒤, 필요한 자료만 골라내어 정리하도록 한다.

평가 요소	확인(✓)
정보를 수집할 때 유의할 사항을 2가지 이상 서술하였다.	
맞춤법에 맞고 문맥이 자연스럽게 서술하였다.	

3. ‘정의’는 어떤 대상의 뜻을 풀이하여 설명하는 방법, 즉 어려운 낱말이나 어휘, 전문적인 용어 같은 것의 뜻을 풀이하는 방법이다.

평가 요소	확인(✓)
정의의 설명 방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대상의 사전적 의미에 맞게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맞춤법에 맞고 문맥이 자연스럽게 서술하였다.	

## 5 상황에 맞는 대화

### (1) 담화와 국어 생활

#### 꼭꼭 확인 문제

208~217쪽

1. ③ 2. 말하는 이, 듣는 이, 발화(내용),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3. ② 4. ①에는 식당의 음식 맛이나 서비스가 괜찮았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이 궁금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②에는 식사할 때 불편한 이가 없었는지, 식사할 때 이가 아파서 힘들지 않았는지 등이 궁금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5. ① 6. ⑤ 7. ③ 8. ③ 9. ④ 10. ① 11. ② 12. 한국 사회에서는 많이 차려 놓아도 겸양의 의미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13. ④ 14. ② 15. 마름 집인 점순네 덕분에 땅을 얻어 짓는 상황에서 자기 아들이 점순이와 좋아지내다 점순네가 알면 점순네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땅과 집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1. 창문이 열려 있는 방에서 할머니가 추워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할머니께서 바람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궁금해하셨다고보다는 추우니까 손녀에게 창문을 닫아 달라는 의도를 담아 말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2. 할머니와 손녀의 대화를 통해 말하는 이, 듣는 이, 발화 내용,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맥락)이라는 담화의 구성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3. (가)는 등푼길(또는 하푼길) 문구점 안에서, (나)는 학교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이루어진 담화이다. 따라서 각 상황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담화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4. 식당에서 주인이 손님에게 “식사하실 때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라고 했을 때는 음식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 묻는 것으로, 병원에서 치과 의사가 환자에게 “식사하실 때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라고 했을 때는 환자의 치아 상태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5. 두 사람의 대화에서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은 여학생이다. 남학생은 서운해하는 여학생의 마음을 모른 채 “고마워.”라고 반응하고 있다.

#### 오답 해설

- ② 여학생은 집안일을 도와드려야 하는 남학생의 처지를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는 남학생을 비꼬며 야속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⑤ 남학생은 자신을 비꼬기 위해 ‘효자’라고 말한 여학생의 의도를 모른 채 ‘효자’라는 말을 표면적 의미 그대로 이해하여 대답하고 있다.
- ④ 여학생은 남학생의 처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비꼬고 있으며, 남학생은 여학생의 의도와 목적을 고려하지 못한 채 반응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 사이에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6. 남학생은 여학생이 ‘효자’라고 말한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대답을 하여 여학생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7. 저승사자가 씨니의 말에 담긴 의도를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글자 그대로 이해하여 대답하였기 때문에 둘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8. 담화의 상황 맥락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적·공간적 상황을 말하는데, 이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중 어느 한 쪽이 더 유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 유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9. 전라도의 방언을 사용하는 할머니가 ‘포도시’라는 표현을 사용해 손자에게 전복을 어렵게 구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손자는 이 말을 ‘포도’라는 표준어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지역 간 언어의 차이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 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10. 딸은 듣는 이인 아빠와의 세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젊은 세대 사이에서 주로 통용되는 ‘직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11. 한국인은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의 영향으로 ‘나’를 써야 할 자리에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한국인의 언어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우리’라는 말을 ‘너와 나’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다.
12. 한국 사회에서는 음식을 많이 차려 놓고도 겸양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고 말한다.
13. 점순이 평소와 달리 혼자서 울타리를 엮고 있는 ‘나’에

게 다가와 말을 걸고, 감자를 건넌 이유는 '나'에게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14. 점순은 '나'가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자 민망하고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진 것이며,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것에 대한 분노로 눈에 독을 올리고 '나'를 쏘아 본 것이다.
15. '나'의 집은 점순네에게 소작을 얻어 땅을 부치기 때문에 점순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마름의 딸인 점순과 자기 아들이 이성으로 친해지면, 소작농인 자기 집의 땅이 떨어지고 사는 집에서도 쫓겨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가 ㉠처럼 주의를 준 것이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221~223쪽

1. ③ 2. ③ 3. ⑤ 4. “창문을 닫을게요.” 5. ④ 6. ①  
7.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딸을 나무라는 의미 8. ③ 9. ④  
10. ③ 11. “정말로 우리가 가족이라서 ‘우리’라고 말한 게 아니야.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나’보다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나라’라고 말하는 거야. 12. ③ 13. ② 14. ⑤ 15. 소작농의 아들인 ‘나’는 마름인 점순네의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1.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말하는 이, 듣는 이, 발화(내용), 맥락(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다.

오답 해설

- ①, ② 말하는 이의 생각이 문장 단위로 실현된 것으로, 의사소통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발화라고 한다.
- ④ 상황 맥락은 의사소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사회·문화적 맥락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만으로 담화의 의미가 사회·문화적 맥락보다 상황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 ⑤ 역사적·사회적 상황, 이념, 공동체의 가치, 신념 등에 의해 형성되는 것은 담화의 사회·문화적 맥락이다.

2. 상황 맥락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적·공간적 상황으로, 담화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맥락을 가리킨다.

3. 할머니가 창문이 열려 있는 방에서 추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할머니의 발화는 추우니까 창문을 닫아 달라는 요청 또는 명령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할머니가 창문이 열려 있는 방에서 추워하고 있는 상황 맥락을 바탕으로 할 때 할머니의 발화 의도는 창문을 닫아 달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손녀는 이를 고려하여 창문을 닫겠다는 내용의 발화를 해야 한다.

5. (나)의 발화에는 수업 중에 탄짓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즉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정진이에게 주의를 주는 말이다.

6. 같은 말이라도 언제, 어디에서 담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가)의 경우는 등하굣길 문구점에서, (나)의 경우는 수업 중인 교실에서 이루어진 담화라는 것을 고려하여야 그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

7. 밤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딸에게 “지금 몇 시니?” 하고 말하는 것은 지금이 몇 시인지 궁금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딸이 집에 늦게 온 것을 나무라는 의미를 지닌다.

8. (가)는 ‘포도시’라는 방언이 의사소통을 어렵게 한 사례이다. 이처럼 지역 간 언어의 차이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사례는 ‘뽕이’의 제주도 방언을 언급한 ③이다.

오답 해설

- ①, ②는 (나)의 상황과 ⑤는 (다)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이다.

9. (다)의 외국인인 공동체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대화를 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인 친구의 대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0. (가)~(다)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하여 지역, 세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③의 ‘동음이의어’는 상황 맥락을 파악하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계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⑤ (다)에서 한국인의 언어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우리'라는 말을 '너와 나'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하여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② (가)에서 전라도 방언을 사용하는 할머니는 손자에게 전복을 어렵게 구했다는 의미로 '포도시'라는 말을 써서 표현했는데, 손자가 전라도 방언을 몰라서 두 사람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 ④ (나)에서 아빠가 이해하지 못한 단어는 '직구'이다. 딸이 말한 '직구'의 의미는 '직접 구매'를 줄인 말이다.

**11. 한국인의 언어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우리'라는 말을 '너와 나'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의 빈칸에는 한국인이 '너' 또는 '나' 대신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쓰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12. (가)에서 점순은 '나'에게 감자를 건네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있지만, '나'는 점순의 행동과 말에 담긴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존심 상해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점순은 “느 집엔 이거 없지?”라며 '나'가 기분 상해할 수도 있는 말을 하였다.
- ② '나'에게 말을 건네고 감자를 주는 것으로 보아 점순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나)에는 점순네 아버지가 마름이고 '나'의 가족이 소작농임이 나타나 있다.
- ⑤ 마름과 소작농 등이 존재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면 소설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13. 이 글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는 어휘는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을 뜻하는 '마름'과 '땅을 소작할 수 있는 권리'인 '배재'이다. 이 단어들을 통해 '나'의 집과 점순네 집의 관계를 알 수 있고, 그러한 관계를 고려해야 이 글에 나타난 '나'의 심리나 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14. 점순이 '나'에게 감자를 건네면서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을 내면서 말하자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감자를 거절한 것이다.**

**15. 제시된 부분에서 '나'는 점순이 '나'의 씨앗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지만, 점순네 집으로 뛰어들어가 싸우거나 닭을 구출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점순네가 마름이고 '나'의 집은 점순네에게서 땅을 얻어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기 때문이다.**

**(2) 들판에서**

**꼭꼭 확인 문제**

227~253쪽

- 1. ④ 2. ④ 3. ③ 4. ④ 5. ⑤ 6. ③ 7. ③ 8. ② 9.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기로 한 맹세의 증표로 민들레꽃을 주고 받고 있으므로 민들레꽃은 형제의 우애를 상징한다. 10. ② 11. ⑤ 12. ① 13. 들판에서 평화롭고 사이좋게 지내던 형제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것이다. 14. ⑤ 15. ② 16. ⑤ 17. 우리 집이 들판의 오른쪽에 있다. 18. ③ 19. ③ 20. ① 21. ⑤ 22. 집을 '내 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3. ⑤ 24. ④ 25. ② 26. ② 27. 형제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는 장애물이 생기면서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형과 아우의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28. ② 29. ① 30. ④ 31. ① 32. ② 33. ⑤ 34. ① 35. 벽 36. ⑤ 37. ⑤ 38. ② 39. 훌륭한 관광 명소 40. ⑤ 41. ④ 42. 사람들의 조급해하는 마음을 부추겨 서둘러 분양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43. ④ 44. ③ 45. ③ 46. ⑤ 47. ⑤ 48. ② 49. ④ 50. ④ 51. ① 52. 말뚝과 밧줄, 벽, 전망대, 총 53. ② 54. ③ 55. ② 56. 형제간 갈등 해소의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다. 57. ② 58. ① 59. ③ 60.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염원

**1. 이 글에서는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과 심리, 사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이 글은 무대 공연을 목적으로 쓴 연극 대본이다.
- ② ❶은 등장인물과 장소, 무대를 소개하고 있는 해설로, ❷는 지시문과 대사로 이루어져 있다.
- ③ 이 글의 대사를 통해 두 인물의 관계가 형제라는 것과 형제의 우애가 매우 깊다는 것, 아름다운 들판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 ⑤ '형과 아우, 들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 형, 아우에게 다가가서 그림을 바라본다.', '기뻐하며' 등과 같은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 등을 지시하고 있다.

2. ❶은 희곡의 구성 요소 중 해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등장인물과 배경, 무대 장치 등을 설명하고 있다.
3. 형은 형님 솜씨가 더 훌륭하다는 아우의 칭찬에 “난 너 만큼 잘 그리지 못하는걸.”이라고 말하며 겸손하게 반응하고 있다.
4. ㉠은 등장인물의 동작, 표정, 말투 등을 지시하는 동작 지시문이다. 막이 오르기 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해설이다.
5. ❸에서 형제는 들판에 핀 민들레꽃을 주고받으며 언제나 사이 좋게 지낼 것을 맹세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❸에서 형은 집을, 아우는 파란 하늘과 해님을 그리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서로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② ❸에서 집을 그리겠다고 한 사람은 형이며, 아우는 집을 그리고 있지 않다. 또한, ❷를 보면 아우는 이미 집을 다 그린 상태임을 알 수 있다.
- ③ 형제는 평화로운 들판에서 그림을 그리며 다정하게 지내고 있다.
- ④ ❸의 내용만으로는 형제가 누구에게 들판을 물려받았는지 알 수 없다. ❷를 보면 형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들판을 물려받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새로운 인물인 측량 기사와 조수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주인공이 바뀌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측량 기사와 조수들의 등장은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을 암시하며 극에 긴장감을 주고 있다.
- ② 새로운 인물의 직업이 측량 기사인 것으로 보아 땅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 ④, ⑤ 측량 기사에게 들판은 개발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상일 뿐이지만, 형제에게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평화로운 터전이다.
7. 측량 기사는 형제의 땅에 아무 허락도 없이 들어와 말뚝을 박고 줄을 치고 있다. 이로 볼 때 측량 기사가 형제에게 예의를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없다.
8. 형제의 땅에 허락 없이 들어온 측량 기사가 오히려 화를 내고 있으므로,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는 말인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어울린다.

**오답 해설**

- ①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할 때를 이르는 말이다.
- ③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이다.
- ④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이다.
- ⑤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를 이르는 말이다.
9. 형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들판에 핀 민들레꽃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우애를 다짐하고 있다.
10. 희곡은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므로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
11. 형과 아우는 그림을 그리면서도 신경이 쓰이는지 말뚝과 밧줄을 힐끗힐끗 바라보고 있다. 게다가 형은 밧줄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넘어가야 할지 망설인다. 이로 볼 때 형제가 말뚝과 밧줄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12. ❹에 나타난 형제의 말이나 행동으로 볼 때 형은 소심하고 소극적인 성격임을, 아우는 대범하고 적극적이며 활달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13. 형과 아우 사이에 일직선의 밧줄이 허리 높이만큼 매어져 둘의 사이를 나누어 놓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형제 사이에 불화가 생길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14. ❷에서 형이 “난 그림이나 그려야겠다.”라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즐기기 놀이보다 더 유익해서가 아니라 아우를 상대하기 싫어서 한 말이다.

**오답 해설**

- ① 아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놀이에서 이겼다면 억지를 부리고 있는 형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아우에게 지기 싫어하는 형의 성격을 알 수 있다.
- ② 아우는 형이 동생인 자신이 형에게 항상 져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평소 형에게 가지고 있던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형은 밧줄을 불편하게 생각하지만, 아우는 재미있다고 여기고 있다.

④ 형은 아우가 줄넘기 놀이에서 이긴 후 보인 의기양양한 행동과 태도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아우에게 화를 내고 있다.

15. 이 글에서 말뚝과 밧줄은 형과 아우의 들판을 갈라놓은 소재로, 형제 사이에 싸움을 일으키며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16. 형과 아우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에 공감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17. 밧줄 때문에 들판이 둘로 나뉘면서 형은 자신이 있는 오른쪽과 아우가 있는 왼쪽을 구별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집이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8. 연극은 공간의 변화에 대한 제약이 크므로 인물이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무대 배경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 게다가 이 글의 무대 배경은 들판이므로 인물의 등장에 따라 무대 배경을 새롭게 바꿀 필요도 없다.

#### 오답 해설

① 형과 아우 사이에는 밧줄이 놓여져 있다.

② 형과 아우는 침묵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④ 형은 집이 오른쪽에 있으므로 '내 집'이라고 하면서 아우에게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라고 권위적인 태도로 말하고 있다.

⑤ 측량 기사와 조수들은 형제의 땅을 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 8에는 형과 아우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형제는 줄넘기 놀이를 하다 다툰 이후 서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20. 측량을 한 다음에는 교묘한 방법으로 땅을 빼앗는 일을 여러 번 했다는 조수들의 말로 볼 때, 측량 기사와 조수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형제의 들판을 빼앗기'임을 알 수 있다.

21. 측량 기사는 조수들에게 측량 실습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의 땅을 차지할 욕심으로 들판에 찾아와 측량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측량 기사가 조수들에게 측량을 가르친 것을 뿌듯해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22. 형은 측량 기사가 쳐 놓은 밧줄을 기준으로 형제가 살던 집이 들판 한가운데가 아닌 오른쪽에 있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집의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3. 이 글에서 사건은 형과 아우의 갈등과 대립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측량 기사는 형제의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뿐이다.

#### 오답 해설

①, ④ 이 글의 작가는 같은 민족인데도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형제간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 간접적(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③ 민들레꽃은 형제간의 우애, 들판은 우리 국토, 말뚝과 밧줄, 벽 등은 대립과 갈등, 단절 등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24. 측량 기사는 형에게 "처음 약속대로 말뚝과 밧줄을 치워 드릴까요?"라고 묻고 있지만, 이는 형의 의중을 떠보며 형제의 갈등을 지속시키기 위해 한 말이지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다.

25. 줄넘기 놀이에서 아우에게 계속 지면서 감정이 상한 형은 아우가 자기 쪽에 있는 젖소를 가지겠다고 말하자 더욱 기분이 안 좋아진다. 이에 형은 아우에 대한 반감 때문에 말뚝과 밧줄을 그대로 두라고 한 것이다.

26. 벽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아우가 가진 땅의 반절을 달라는 측량 기사의 요구에 아우는 머뭇거리며 곤란하다는 뜻을 비치고 있으므로, 여기에 들어갈 지시문으로는 '망설이는 태도로'가 가장 적절하다.

27. 밧줄과 달리 벽은 형제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는 장애물이므로, 형과 아우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28. 이 글은 연극의 대본인 희곡이다. 희곡은 연극 공연을 목적으로 하며(㉠), 무대 장치를 자유롭게 바꾸기 어려우므로 시간이나 공간의 변화에 제약이 있으며, 한정된 공간에서 공연되므로 등장인물의 수에도 제약을 받는다(㉡). 또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므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 오답 해설

㉠ 서술자가 존재하는 것은 소설이다.

㉣ 작가의 체험과 가치관이 직접 드러나는 것은 수필의 특징이다.

29. ㉠에서 아우는 벽을 세운 것은 형 때문이라며 형을 원망하다가 곧 자신이 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형에게 잘못을 빌고자 한다.

**오답 해설**

② “나 혼자 독립해서 사는 것도 나쁜 건 아닐 텐데,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를 통해 독립해서 살고 싶어 하는 아우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동생 탓만은 아냐. 내 탓도 있어. ~ 동생은 얼마나 원망했을까!”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형제 사이에 막상 벽이 세워지자 형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으며, 아우 역시 “벽은 잘못된 거야.”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형제는 둘 다 자기 잘못을 반성하며 현재의 상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형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아우의 말과 “미안하다고 말해도 소용없다면?”이라는 형의 말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인물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다.

30. ㉡에서 형과 아우는 서로에게 사과를 하려다 망설이며 내적 갈등을 겪는다. 그러다 결국 사과하기를 포기하고 각자 그림을 그리던 곳으로 가는데, 이때 맑았던 하늘이 흐려지고 바람이 불어온다. 이러한 날씨의 변화는 암울하고 불길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31. 이 글에서 날씨는 인물의 심리와 앞으로 일어날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한다. 즉 맑았던 하늘이 흐려지고, 바람이 세계 불어오는 것은 암울하고 불길한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형제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32. 측량 기사는 형에게 “결국 이 들판은 당신 형제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될 겁니다.”라고 말하며 들판을 차지하고자 하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측량 기사의 “이 들판이 내가 여러분에게 분양해 드릴 땅입니다!”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④ 측량 기사는 형에게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조용한 게 의심스러워요.”, “땅굴을 파는 건 아닐까요?” 등과 같이 아우를 의심하도록 부추기는 말을 함으로써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여 전망대를

팔고자 하고 있다.

⑤ 측량 기사는 벽에 다가가서 귀를 기울이는 행동을 함으로써 아우에 대한 형의 의심을 부추기고 있다.

33. 측량 기사가 데려온 사람들은 공장, 상점, 주택 등을 짓기 위해 땅을 분양받으려는 사람들로, 땅에 대한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측량 기사와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다.

34. 형이 아름다운 들판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높은 벽이 세워져 들판이 반으로 나뉘었고, 이 때문에 들판의 모습이 보기 싫게 변했기 때문이다.

35. 측량 기사의 교묘한 술책으로 설치된 벽은 형제간의 소통을 막아 갈등을 심화시키는 소재이다. 또한, 이 작품을 우리의 현실 상황에 빗대어 보았을 때 휴전선 때문에 분단이 고착화되고 왕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벽은 휴전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36. 측량 기사는 형으로 하여금 아우에 대해 경쟁의식이나 불안감을 갖도록 말함으로써 형제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형에게 전망대를 팔아 형의 땅을 빼앗고 있는 사람이다.

37. 작가는 벽을 세우고 대립하는 형제의 행동을 어리석은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남과 북으로 나뉘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분단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형의 “글쎄,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라는 말로 볼 때, ㉠에는 ‘망설이며’와 같은 지시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② 조수 2는 측량 기사를 도와 형에게 전망대를 팔기 위해 형이 안 사면 아우에게 팔겠다고 하며 형으로 하여금 초조함과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③ 측량 기사는 아우의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으므로 형의 땅뿐만 아니라 아우의 땅까지 분양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사람들은 형제간의 불화가 안쓰러워서가 아니라 벽 때문에 땅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로 벽이 눈에 거슬린다고 한 것이다.

38. 형의 땅을 차지하려고 전망대 가격을 터무니없이 제시하면서 형을 배려하는 척하는 측량 기사의 모습이 나타

나 있으므로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생각해 주는 척함을 이르는 말'인 '고양이 쥐 생 각'이 어울리는 상황이다.

**오답 해설**

- ① 넓은 세상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는 견식이 좁아 저만 잘난 줄로 아는 사람에게 쓸 수 있다.
  - ③ 맵다고 울면서도 겨자를 먹는다는 뜻으로, 싫은 일을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다.
  - ④ 무서운 사람 앞에서 설설 기면서 꼼짝 못 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다.
  - ⑤ 개에게 쫓기던 닭이 지붕으로 올라가자 개가 쫓아 올라가지 못하고 지붕만 쳐다본다는 뜻으로,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어찌할 도리가 없이 된 상황에서 쓸 수 있다.
- 39.** 이 글의 작가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민족의 분단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형제가 함께했던 들판이 벽으로 나뉜 상황은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 상황을 반어법을 활용해 '홀 륭한 관광 명소'라고 표현하고 있다.
- 40.** 측량 기사는 아우의 편을 들어 주는 척하면서 벽이 생긴 것은 형 때문이라며 형에 대한 적대감을 조성하고, 근거 없이 형을 모함하여 아우에게 불안한 마음과 위기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 41.** 측량 기사는 아우에게 사전에 충을 살 것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충을 가져와 팔고 있다.
- 42.** 측량 기사는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잇속을 챙기고자 선착순 접수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43.** 땅값이 뛰는다는 측량 기사의 말에 땅을 사려고 서두르는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이 드러나 있다.
- 44.** 아우는 형이 자신의 땅으로 넘어올 것이라는 측량 기사의 말에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 45.** 19와 20은 희곡의 구성 단계 중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형과 아우의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어 서로에게 충까지 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오답 해설**

①은 대단원, ②는 전개(상승), ④는 하강, ⑤는 발단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46.** 19에서 측량 기사와 조수들은 웃으며 퇴장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에게 속은 형제에 대한 비웃음이자 일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어 가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웃음이다.

**47.** 토론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뉘는 주제에 대하여 각각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근거를 들어 논쟁을 하는 말하기이다. 따라서 양측 토론자들이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대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으므로 ①~④의 사례들과 차이가 있다. ①~④의 사례들은 이 글의 형제처럼 처음에는 좋은 사이였던 두 주체가 어떤 원인에 의해 대립하고 있는 경우이다.

**48.** ①과 같은 날씨는 형제가 쓰는 총소리와 극적인 조화를 이루며 형제간의 대립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암시한다.

**49.** ④는 이 작품이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관점에서 감상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의 현실이 작품에 반영되었다는 관점에서 감상한 내용들이다.

**50.** 측량 기사는 형제끼리 대립하고 갈등하는 상황을 지속시키기 위해 형에게 벽을 잘 지키라며 명령하듯 말하고 협박하며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51.** 형 역할을 하는 배우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떠는 모습으로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52.** 이 글에는 갈등을 조성하는 여러 소재들이 등장하는데, 말뚝과 밧줄로 시작된 형제간의 갈등은 벽, 전망대를 설치하면서 심화되고 충을 쏘 때 최고조에 이른다.

**53.** 아우는 자신과 형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후회하고 있을 뿐 형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고 있지 않다.

**54.** 형제가 비를 맞으며 벽을 지키는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고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극도의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55.** 22, 23은 형과 아우가 각각 벽 앞에서 상대방 없이 혼자 하는 대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희곡에서는 독백이라고 한다.

**56.** '민들레꽃'은 형제간 우애의 증표이므로 앞으로 갈등해소의 매개체 역할을 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57. 형제 사이를 가로막았던 벽을 허무는 행위는 형제 사이의 우애 회복, 대립과 갈등의 종결 등을 의미하며, 이를 우리의 분단 현실에 비추어 볼 때는 분단 현실의 극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현실과 외세 종속과는 연관이 없으며 이 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므로 외세로부터의 독립 의지를 드러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58. 이 글의 대단원에서 ㉠과 같은 날씨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로, 형제의 화해를 암시한다.
59. 형은 우애의 상징이었던 민들레꽃을 아우 쪽으로 던지며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있으므로, ㉡에 아우의 말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60. <보기>와 같은 관점으로 이 작품을 우리의 분단 현실과 관련지어 해석할 때 '민들레꽃'은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염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시험엔 이렇게!

254~259쪽

1. ① 2. 절망, 반성, 후회, 슬픔 등의 감정이 나타나 있다.  
3. ③ 4. 전망대 5. ② 6. ④ 7. ③ 8. ②

1. 평화롭게 우애를 다지며 지내던 형제는 측량 기사가 처놓은 밧줄로 줄넘기 놀이를 하다 서로 감정이 상해 싸우기 시작하였다.

오답 해설

- ② 측량 기사와 조수들은 형과 아우를 이간질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③ 밧줄의 오른쪽에 있는 집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인물은 형이다.  
④ 측량 기사는 형에게 전망대 가격을 깎아 주는 척만 하였을 뿐, 사실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  
⑤ 충을 발사하며 대립하던 형제는 들판에 남아 있는 민들레꽃을 보면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다.
2. 자책감에 괴로워하는 형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슬퍼하는 아우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3. 이 글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물은 형이다. 아우의 말과 행동에 소극적인 면은 나타나 있지 않

다. 아우는 측량 기사가 친 말뚝과 밧줄을 직접 치우면 된다고 형을 안심시키고 있는데, 그 모습에서 오히려 대범함을 느낄 수 있다.

4. 상대방을 감시하는 도구이자 형제간의 의심과 불신을 상징하는 소재는 '전망대'이다.
5. (가)에서 아우는 자신의 그림에 대한 형의 칭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6.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고 공감하며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상황에 알맞은 표정이나 시선, 어조, 몸짓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에서 아우는 형의 그림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있으므로 형의 그림이 있는 곳으로 와서 그림을 보고 감탄하며 말할 때 그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다.
7. 비판적 분석 능력은 상대방 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들을 때 기를 수 있으므로, ③은 비판적 듣기의 장점에 해당한다.
8. 지은은 형을 질투하기도 했다는 범서의 말에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상대가 동질감을 느끼도록 말하고 있고, 범서는 연습 시간에 대한 의견이 다른 친구들의 말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정한 연습 시간을 재조정하고 있다. 이는 모두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며 듣고 말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265~267쪽

1. ④ 2. ③ 3. ② 4. 측량을 한 다음엔 땅을 빼앗았죠.  
5. ⑤ 6. ③ 7. ④ 8. 네 입장에서는 내가 항상 너를 이기려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날 속였다고 생각하며 너에게 뭐라고 해서 정말 미안하다. 9. ③ 10. ⑤ 11. ①

1. 이 글은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는 연극의 대본으로, 해설, 대사, 지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술, 묘사, 대화로 이루어진 산문 문학의 갈래는 소설이다.
2. (나)에서 형과 아우는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민들레꽃을 꺾어 우애를 맹세하며 공감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 형은 단정적인 어조가 아니라 청유형의 어조로 민

들레꽃을 걸고서 사이좋게 지낼 것을 맹세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형제는 서로에게 다가가 상대방의 그림을 바라보며 상대방 그림을 칭찬하고 있다.

④ (나)에서 아우는 사이좋게 지내기로 맹세하자는 형의 제안에 “그래요.”라며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다.

⑤ 형제는 서로의 감정에 공감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공감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

3. 형제는 자신들의 땅에 함부로 들어와 말뚝을 박고 줄을 치는 측량 기사 일행에게 화가 난 상태이므로 ㉠에는 이러한 상황과 어울리는 지시문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측량하고 있지요, 보시다시피.”라고 대꾸하는 측량 기사의 이어지는 말로 볼 때 측량 기사는 매우 뻔뻔하게 대응하고 있으므로 ㉡에는 ‘태연하게’와 같은 지시문이 어울린다.

4. 측량 기사와 조수는 허락도 없이 형제의 땅을 측량하고 있는데, (라)에서 조수 2는 그동안 측량을 한 다음에는 교묘한 방법으로 땅을 빼앗아 왔음을 말하며, 이들이 형제의 들판에 들어온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5. (마)는 형제가 총까지 쏘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부분이다.

**오답 해설**

① 형의 대사를 통해 등장인물 간의 관계가 형제임을 알 수 있다.

② 형제는 측량 기사와 조수들이 설치한 밧줄로 놀이를 하면서 다투기 시작하였다.

③ 형의 대사에 나오는 ‘이쪽’이라는 말에서 소유욕과 경계가 생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형은 말뚝과 밧줄을 치우지 못하게 하고, 아우는 이보다 더 튼튼한 것으로 형제 사이를 막고자 하는 모습으로 볼 때 형제간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라)에서 측량 기사는 형제 사이를 오가며 형제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으며, (마)에서는 동생을 적으로 생각하라며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

7. 전망대는 상대를 감시하기 위한 도구로 형제간의 의심과 불신을 상징한다.

8. 아우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아우의 감정을 배려하는 표현으로 바꾼다.

9. 이 글에서는 날씨의 변화를 통해 앞으로의 사건 전개 및 갈등 양상을 암시하고 있다. 즉 날씨는 형제간의 갈등 심화(‘맑았던 하늘이 흐려지고, 바람이 세게 불어온다.’)나 화해(‘비가 그치면서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비친다.’)를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10. ㉠은 이 글의 주제를 담고 있는 대사로 화해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대립과 갈등의 종결, 우애 회복, 우리 민족의 동질성 회복, 분단 현실의 극복을 상징한다.

11. ㉠의 「손에 손잡고」는 냉전 시대의 대립과 갈등의 극복과 인류 평화의 염원을 주제로 한 노래이므로, 이 글의 주제가 드러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들려줄 노래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내가 만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노래한 것이다.

③ 「거위의 꿈」은 모든 역경 속에서도 꿈을 믿고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지닌 노래이다.

④ 「내가 네 편이 되어 줄게」는 기댈 곳 하나 없어 절망하는 이를 위로하는 노래이다.

⑤ 「개똥벌레」는 보잘것없이 사는 존재의 외로운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대단원 평가 대비하기**

270~275쪽

1. ⑤ 2. ② 3.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야 한다. 4. ③ 5. ③ 6. ⑤ 7. ⑤ 8.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를 윗세대에게 사용할 때는 그 말의 의미를 미리 설명해 주거나 윗세대의 말하기 방식을 고려하여 대화하면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을 거야.” 9. ⑤ 10. ① 11. ④ 12. ③ 13. ④ 14. ② 15. 남북을 갈라놓은 휴전선을 상징한다. 16. ① 17. ② 18. ⑤ 19. ③ 20. ① 21. ⑤ 22. ② 23. ㉠: 큰 목소리로 단호하게 / ㉡: 고개를 크게 끄덕이면서 24. ③ 25.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했다는 뜻을 전달한다. / 상대방의 처지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협력적으로 소통한다. /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고 정리하며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1.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 중 사회·문화적 맥락은 지역, 세대, 문화, 역사 등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처한 시·공간적 장면은 상황 맥락의 요소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말하는 이, 듣는 이, 발화 내용,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맥락)이 있다.
  - ②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 상황인 맥락에 따라 발화의 정확한 의미가 결정된다.
  - ③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생각이 문장 단위로 표현된 것을 발화라고 하고,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나 발화의 연속체를 담화라고 한다.
  - ④ 같은 말이라도 장소나 시간, 의도와 목적 등의 상황 맥락에 따라 담화의 의미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2. 담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듣는 이의 상황뿐만 아니라 말하는 이의 상황 파악도 중요하므로 듣는 이의 상황을 항상 먼저 고려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3. (가)는 등갯길이나 하갯길에 문구점에서 이루어진 대화이고, (나)는 학교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이루어진 대화이다. “정진아, 뭐 하니?”라는 같은 발화라도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진 대화인지에 따라 그 발화에 담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4. ㉠은 자신이 말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전화하러 가려는 저승사자의 말과 행동에 어이없어하는 씨니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담화이다.
  5. 사회·문화적 맥락은 지역, 세대, 문화, 역사 등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시간과 장소, 의도와 목적 등은 상황 맥락의 요소에 해당한다.
  6. 전라도에서는 ‘간신히’라는 의미의 말을 ‘포도시’라고 한다. 그림 속의 손자는 이러한 방언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할머니의 발화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7. 아빠는 ‘직구’에 대해 모르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딸이 말한 줄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다.
  8. 담화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

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담화 상황에 맞게 말하도록 조언할 수 있다.

9. 담화는 지역, 세대, 문화, 역사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담화 상황에 맞게 말해야 원만한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다.
10. ‘엄마’, ‘아빠’를 ‘우리 엄마’, ‘우리 아빠’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문화와 관련이 있다. 영어와 달리 국어에서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우리’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한다.
11.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하고, 그들의 종교와 문화 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12. 형 쪽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지자 아우는 그 소리에 놀라 허공을 향해 위협사격을 하고 있다. 형의 사격에 맞서 적극적으로 형을 공격하는 상황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측량 기사는 형제의 갈등을 지속시키며 벽을 설치하고 전망대를 팔고 있다.
  - ② 형은 아우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 자신보다 늦게 낸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조수는 형에게 총 쏘는 법을 알려 주면서 형이 쥐고 있는 장총의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
  - ⑤ 형은 천둥소리를 부모님이 자신을 꾸짖는 소리로, 아우는 비를 눈물로 느끼며 각자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
13. 형과 아우를 연기하는 배우는 사건 전개에 따라 달라지는 심리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연기해야 하는데, 형제는 측량 기사의 농간에 망설이다가 결국 넘어가고 있으므로 당당함이 묻어나도록 연기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의견이다.
  14. 이 글에서 ‘전망대’는 형이 아우를 감시하려고 설치한 도구로 형제간의 의심과 불신을 상징한다.
  15. <보기>의 관점에 따르면 이 글은 한국 사회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벽은 형제간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남북을 분단한 휴전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16. (바)에서 형과 아우는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하고 지난

행동을 반성하면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다.

17. 첨예하게 갈등했던 형제는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서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뭔가를 찾다가 우애의 증표였던 민들레꽃을 발견하면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앞으로 형과 아우가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개 과정에 어울리는 낱씨는 '비가 그치면서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비친다.'이다.

18. 가위바위보에서 자꾸 져 아우가 자기 쪽으로 계속 넘어오자 속상한 마음에 말한 형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 쪽으로 함부로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아우의 말은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는 말로 볼 수 없다.

19. 희곡과 소설은 모두 대립과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가)를 (나)로 바꾸어 쓴다고 대립과 갈등의 정도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20.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며 비가 쏟아지자 형은 측량 기사에게 속아 들판을 다 빼앗긴 채 아우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후회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비를 맞으며 벽을 지키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자각한 아우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탄식하고 있다.

③ 형과 아우는 민들레꽃을 꺾어 서로에게 던지며 화해를 신청하고 있다.

④, ⑤ 점순은 '나가 울타리를 엮는 곳에 와 자꾸 말을 걸거나 감자를 주면서 '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있지만, 정작 '나'는 이러한 점순의 행동을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낱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등의 생각을 하며 점순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 민들레꽃을 전하며 서로 화해하고 벽을 허물기로 하면서 형제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희망적인 분위기를 암시하며 연극이 끝나고 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을 예고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22. 점순이가 감자를 건네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나'는 통명스럽고 무뚝뚝하게 응대하고 있다.

23. ㉠에서 형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에서 아우는 형의 말에 수긍한다는 뜻을 보이는

것이 적절하다.

24. 진현은 범서의 말에 공감을 표하는 지은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 하지 않고 편견을 주고 있으며,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포기하기를 중용하고 있다.

25.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대화하고 있는 범서와 지은의 말하기 태도나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논술형 평가 대비하기**

276~277쪽

**(1) 담화와 국어 생활**

1. 담화의 구성 요소: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맥락), 말하는 이(화자), 듣는 이(청자), 발화(내용) / 담화의 의미를 이해할 때 담화의 구성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이다. 2. 고마워. 하지만 효자라고 불리기엔 아직 많이 부족해. / 어머니가 수술 후 다리가 불편해서서 당분간은 주말에도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해. 난 봉사 활동을 갈 수 없으니 미안하지만 다른 친구랑 갈래? 3. 한국인의 언어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우리'라는 말을 '너와 나'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 정말로 우리가 가족이라서 '우리'라고 말할 게 아니야.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나'보다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나라'라고 말하는 거야. 4. 나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는 닭을 잡아서 대접해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들판에서**

1. '민들레꽃'은 형제의 우애를 상징하며, 형제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우애를 회복하는 데 매개체 역할을 한다. 2. 남북 분단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 극복 의지를 다지자. (민족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자.) 3. 아우에 대한 경쟁심을 유발하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형에게 전망대를 팔아 형의 땅을 차지하려 한다.

**(1) 담화와 국어 생활**

1.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말하는 이, 듣는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맥락), 발화(내용) 등이 있다. 같은 말(발화)이라도 말하는 이, 듣는 이, 맥락 등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잘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해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담화의 구성 요소 4가지를 표의 각 자리에 바르게 채워 넣었다.	
담화의 구성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2. 남학생은 서운해하는 여학생의 마음을 모른 채, '효자'라는 말을 표면적 의미 그대로 이해하고 대답을 하여 여학생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남학생이 자신에게 효자라고 말한 여학생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말하며 양해를 구하면, 여학생은 남학생을 이해해 줄 것이다.

평가 요소	확인(✓)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말하고 있는 부분을 바르게 찾았다.	
상대방의 말에 담긴 의도와 목적을 바르게 파악하였다.	
상대방의 말에 담긴 의도와 목적을 고려하여 맥락에 맞게 서술하였다.	

3. 한국인의 언어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우리'라는 말을 '너와 나'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된 상황이다. 그러므로 빈칸에는 두 학생이 '나의 엄마', '나의 아빠'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까닭을 우리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평가 요소	확인(✓)
담화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이유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외국과 다른 한국의 언어문화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4. 밑줄 친 말은 대접할 것이 있는데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김 선생)에게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는 주인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려고 한 말이다. 즉 밑줄 친 말은 웃음을 유발하는 농담조의 표현이지만 주인의 인색함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평가 요소	확인(✓)
이야기 속 상황 맥락을 바르게 파악하였다.	
상황 맥락에 맞게 말에 담긴 의미를 서술하였다.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 (2) 들판에서

1. (가)에서 우애의 증표가 되었던 민들레꽃은 (마)에서 형제간의 불신을 없애 주고 우애를 회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평가 요소	확인(✓)
(가)를 바탕으로 민들레꽃이 상징하는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였다.	
민들레꽃이 사건 전개 과정에서 하는 역할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2. <보기>에는 이 작품이 분단 현실을 그리고 있다는 관점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때, 측량 기사의 흥제로 대립하던 형제가 민들레꽃을 보면서 화해하는 것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북이 화해해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보기>의 관점을 바르게 파악하였다.	
<보기>의 관점에서 작품의 주제를 바르게 파악하였다.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3. (나)에서 측량 기사 일행은 형과 아우의 다툼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하여 형으로 하여금 전망대를 사도록 함으로써 형의 땅을 차지하려 하고 있다.

평가 요소	확인(✓)
측량 기사와 조수들의 말하기 방식의 특징을 바르게 파악하였다.	
측량 기사 일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드러나도록 서술하였다.	
50자 내외의 문장으로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